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박복영 · 박철형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최근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세계 최대 원유생산지역인 중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 선진국들과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막대한 유동성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들의 오일머니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석유수출 급증과 적극적인 정부 투자, 내수시장 확대 등의 성장에 힘입어 최근 5년간 6~7%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동 걸프지역은 1조 달러가 넘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BRICs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동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이자 최대 플랜트 수출 대상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우리의 대(對)중동 수출은 세계 주요 경제권역 가운데 중남미에 이어 둘째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신흥 수출 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산유국의 오일머니가 우리나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치하는 것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안보 파트너, 최대 플랜트 수출 대상지역, 신흥 수출 대상지역, 투자협력 파트너 등으로서 중동지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우리 경제에서 중동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동 통상전략은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부재와 이해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서 중동지역이 가지는 의의를 심도있게 평가하고 대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종합적・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2006년에는 「선진통상국가 실

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지역별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보고서는 전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중의 중동 GCC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박복영 아・중동팀장과 박철형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산업자원부 통상협력정책팀 황규연 팀장과 이승재 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인남식 교수, 산업연구원 주동주 연구위원, 본원의 세계지역연구센터 김흥종 유럽팀장과 남호선 연구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중동 GCC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평가하고 대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으로서 종합 전략과 부문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되고 아울러 정부의 대중동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이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와 중동 GCC 지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중심 연구주제로 부상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국문요약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가 점쳐질 만큼 최근 수년 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동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발전전략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중동이 우리에게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고려하여 우리의 대중동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GCC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대외경제협력 현황과 정책 분석, 세계 주요 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전략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걸프지역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즉 에너지 부문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획득하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다각화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유가급락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자원의 고갈 이후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높은 인구증가율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증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외국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석유 및 가스

의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다각화를 위해서는 민영화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에서는 에너지 연관산업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 산업 등이 주요 육성대상이다. 이러한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금융, 관광, 물류, IT,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등이 유망한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걸프지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 20년 이상 산업다각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이 지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소위 '지대수입형 국가'로서 정부가 압도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민간경제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프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방향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이다. 정부역할 축소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와 보조금 축소,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경우 상품수입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으나, 서비스업 및 외국인투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제조품의 경우 2003년부터 GCC 차원에서 5%의 단일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05년 말에 GCC 국가들 중 경제 비중이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GCC 6개국이 모두 WTO에 가입하게 되었다. GCC는 2001년부터 EU와의 FTA 협상을 재개하였으며, 그 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남미의 MERCOSUR 등과 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GCC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대부분 수출시장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에서의 관계강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GCC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로 요구하고, GCC는 FTA협상 대상국에게 에너지도 소매업, 석유화학시장 진출을 희망하며 기술이전과 투자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중에 GCC와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대중동 정책을 살펴보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걸프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것은 고유가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걸프지역의 수출시장이 확대된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문제가 자국의 안보나 사회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동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개방이라는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경제통합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걸프지역 사이의 틈새를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네 국가 모두 이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 이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고려할 때 FTA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FTA가 정치・외교적 관계 강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그 결과 간접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 나라 모두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인데, 특히 이란과 이라크는 유전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중동경제는 당분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걸프지역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걸프지역과의 협력을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차원의 통상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대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란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요인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공

급받아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석유의 경우 최근에 공급능력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물량부족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가 절실하다. 현재까지는 제도적 틀을 통해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명시적 협약 외에 상시적 협력을 통한 신뢰 및 우호관계 구축이나 경제적 연계 관계 형성도 비상시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동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다변화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동 통상관계는 주로 상품수출과 에너지 수입, 그리고 플랜트 수출에 국한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동 투자나 중동의 대한투자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제관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중동 산유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처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상황과 정책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이나 플랜트의 수출입을 넘어서서 양 지역간 경제관계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관계를 통한 양 지역간 경제통합 심화는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장이나 투자면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신흥시장 중 하나이므로 기존 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오일머니의 투자유치를 중요한 통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기금으로 운용되는 중동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다른 외국 자금과는 달리 안정적 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관련분야, 석유화학, 제철, 건설자재, 금융이나 도시개발 등 서비스 분야, 민간자본 참여형 인프라 사업 등이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의 수주율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통상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주규

모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나 엔지니어링 분야와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진출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랜트 수주에서 파이낸싱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우리 금융기관의 파이낸싱 능력을 제고하여 중동에서의 금융산업 진출과 플랜트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서 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머리말 ····· 19

제2장 중동의 발전전략 및 중장기 경제전망 ····· 23

1. 중동경제의 구조적 특징 ····· 25
2. 최근의 경제동향 ····· 29
3. 경제발전 전략 ····· 33
   가. 석유수입의 안정적 유지 ····· 37
   나. 산업다각화 ····· 41
   다. 자국민의 고용 확대 ····· 44
   라. 인적자원 개발 ····· 47
   마. 경제개혁 ····· 50
4. 중장기 경제전망 ····· 54

제3장 중동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 59

1. 대외경제관계 현황 ····· 61
   가. 교역 및 투자 ····· 61
   나.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 ····· 71
2. 대외경제정책 ····· 86
   가. GCC의 역내 경제통합 ····· 86

나. GCC의 역외 FTA 정책 ····· 89

제4장 주요국의 대(對)중동정책 현황 및 시사점 ····· 93

1. 미국 ····· 95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 95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 96

2. EU ····· 99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 99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 100

3. 일본 ····· 103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 103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 105

4. 중국 ····· 107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 107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 108

5. 시사점 ····· 109

제5장 한·중동 경제관계 현황 ····· 113

1. 교역 및 투자 ····· 115

2.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 119

제6장 중동과의 중장기 통상전략 ····· 123

1. 통상에서 중동지역의 의의 ····· 125

가. 절대적 에너지 공급지역 ····· 125

나. 최대 플랜트 수출시장 ····· 128

다. 오일머니 유치 지역 ····· 130

라. 역동적 신흥시장 ····· 132
2. 중장기 통상전략 ····· 135
가. 통상정책의 목표 ····· 135
나. 종합적 통상전략 ····· 136
다. 부문별 통상전략 ····· 145

참고문헌 ····· 160

Executive Summary ····· 167

표 차례

표 2-1. GCC 국가의 인구 구성(2004년 기준) ····· 28
표 2-2. 걸프지역 국가의 주요 지표(2006년) ····· 29
표 2-3 사우디아라비아의 제8차 5개년 계획(2005~2009년) 개요 ····· 36
표 2-4. 걸프지역 각국의 에너지개발 계획(2006년 말 현재) ····· 40
표 2-5. UAE의 제조업 분야별 현황과 다각화 추진 동향 ····· 43
표 2-6. GCC 국가의 주요 노동력 지표(2003년 기준) ····· 46
표 2-7. 걸프지역 국가의 대학진학률 추이 ····· 49
표 2-8. 최근 걸프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변화 ····· 52
표 2-9. 걸프지역 주요국의 부문별 기업환경 순위(2005년 기준) ····· 53
표 3-1. 중동지역 교역 추이(1995~2006년) ····· 61
표 3-2. 중동의 20대 수출대상국 및 수출 비중(1995~2006년) ····· 66
표 3-3. 중동의 20대 수입대상국 및 수입 비중(1995~2006년) ····· 68
표 3-4. 세계 주요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2005년 누적액 기준) ····· 69
표 3-5. 미국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72
표 3-6. 미국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73
표 3-7. 중국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75
표 3-8. 중국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76
표 3-9. 일본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78
표 3-10. 일본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79
표 3-11. EU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81
표 3-12. EU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82
표 3-13. 인도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84

표 3-14. 인도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85
표 3-15. GCC 국가별 역내교역 비중(2003년 기준) ····· 88
표 3-16. GCC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2006년 말 현재) ····· 89
표 4-1.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간 무역자유화 추진 현황 ····· 98
표 4-2. EU의 대GCC 국별 수출입 현황 ····· 99
표 4-3. EU-GCC FTA 주요 이슈 ····· 103
표 4-4. 주요국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비교 ····· 112
표 5-1. 한국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117
표 5-2. 한국의 대중동 지역별・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118
표 5-3. 우리나라의 대중동 플랜트 수출의 국가별 및 부문별 구성(2006년) ··· 121
표 5-4.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수입 현황(2006년) ····· 121
표 6-1. 국부펀드의 지역별 규모 ····· 130
표 6-2. 한・중동의 상호보완적 관계 ····· 138

그림 차례

그림 2-2. 걸프지역의 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의 관계 ····· 30
그림 2-3. 걸프지역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 32
그림 2-4. 중동 산유국의 주요 경제정책목표와 정책방향 ····· 34
그림 2-5. UAE의 연방정부 종합전략(2007년) 개요 ····· 35
그림 2-6. 중동 주요국 비석유 부문 비중 ····· 42
그림 2-7. UAE의 산업별 GDP 구성 ····· 42
그림 2-8. GCC의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전망 ····· 55
그림 2-9. GCC의 시나리오별 1인당 GDP 전망 ····· 56
그림 2-10. GCC의 시나리오별 GDP 내 비석유 부문 비중 전망 ····· 56
그림 2-11. GCC의 시나리오별 실업률 전망 ····· 57
그림 3-1. 중동지역 교역 추이(1995~2006년) ····· 62
그림 3-2. 중동지역 수출 및 전세계 비중 추이(1995~2006년) ····· 63
그림 3-3. 중동지역 수입 및 전세계 비중 추이(1995~2006년) ····· 63
그림 3-4. 중동의 수출대상국 유형별 수출비중 추이(1995~2006년) ····· 64
그림 3-5. 중동의 수입대상국 유형별 수입비중 추이(1995~2006년) ····· 65
그림 3-6. 대중동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 추이(1995~2005년) ····· 69
그림 3-7. 중동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 비중(2005년) ····· 70
그림 3-8. 중동의 대미 교역 추이(1995~2006년) ····· 71
그림 3-9. 중동의 대중 교역 추이(1995~2006년) ····· 74
그림 3-10. 중동의 대일 교역 추이(1995~2006년) ····· 77
그림 3-11. 중동의 대EU 교역 추이(1995~2006년) ····· 83
그림 3-12. 중동의 대인도 교역 추이(1995~2006년) ····· 86
그림 5-1. 한국의 대중동 교역 추이(1995~2006년) ····· 116

그림 5-2. 우리나라의 대중동 플랜트수출 추이 ····· 120
그림 6-1. 지역별 원유생산 전망(2000~2030년) ····· 126
그림 6-2.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 추이 및 중동의 비중 ····· 128
그림 6-3. 중동의 우리나라 유가증권 순매수 규모 추이 ····· 131
그림 6-4. 최근 3년간(2005~2007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증가율 ····· 132
그림 6-5. 중동의 총수입 중 각국 점유율 추이 ····· 133
그림 6-6. GCC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 ····· 146

제1장

머리말

01 머리말

본 보고서는 세계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통상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과제의 일부로,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은 좁은 의미에서 무역과 투자 관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산업협력, 에너지 협력, 기타 다양한 경제교류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제외한 다양한 차원의 국가간 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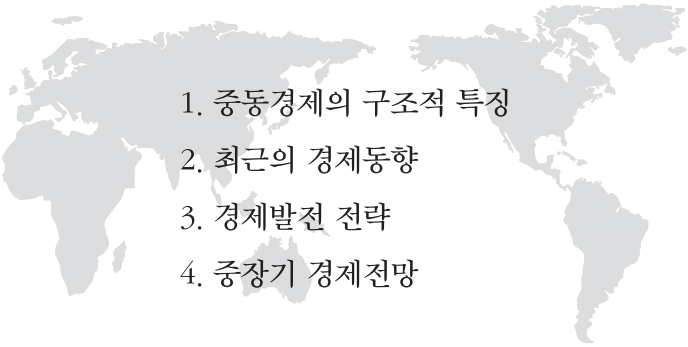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 건설과 플랜트 분야 진출, 상품수출 등의 형태로 중동지역과 많은 경제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중동경제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동의 발전전략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중동이 우리에게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고려하여 우리의 대중동 통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중동은 흔히 페르시아만 연안의 국가들(이하에서는 간단히 '걸프지역'으로 지칭)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아랍권을 지칭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을 페르시아만 연안국가로만 한정했으며, 북아프리카의 아랍국가들과의 통상정책은 아프리카 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중해 동쪽 연안에 위치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소위 레반트지역은 우리

와의 경제관계가 아직 밀접하지 않고 걸프지역 국가와는 이질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걸프지역 국가 중에서도 이란과 이라크는 현재 극도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이며, 그 문제의 해결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두 국가의 발전 잠재성과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밖에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걸프협력협의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6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동의 중장기 전망과 대외경제관계, 주요국의 대중동정책을 검토하고, 우리와 중동의 경제관계 및 주요 협력 이슈를 토대로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제2장

중동의 발전전략 및 중장기 경제전망



1. 중동경제의 구조적 특징
2. 최근의 경제동향
3. 경제발전 전략
4. 중장기 경제전망

02

중동의 발전전략 및 중장기 경제전망

1. 중동경제의 구조적 특징

중동과의 통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동경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구조적 특징을 우선 이해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걸프연안에 위치한 중동 국가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후진국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경제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경제동향이나 정책 역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적절한 통상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걸프지역 경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간략히 정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걸프지역 경제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1980년대 각국은 산업다각화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전체 GDP 중 석유・가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이르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나 도소매업, 숙박업, 운수업 등 경제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전체 GDP의 50~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유・가스 산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제조업 부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바레인이나 UAE의 두바이 경우는 에너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물류, 금융, 관광업 등이 일부 발전하여 에너지 부문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란은 다른 걸프 국가들과는 달리 철강, 자동차, 농산물

가공업 등 제조업이 일부 발전되어 있어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이 GDP의 25%로 비교적 낮다.

에너지 산업이 정부재정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전체 재정규모 중 석유 부문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0%에 이르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대부분의 경우 60%를 웃돈다. 이란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GCC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석유 부문의 비중에 가스 부문의 비중을 합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중동 국가의 조세구조를 보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낮기 때문에 에너지 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재정의 주요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둘째, 걸프지역 경제는 전통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석유 부문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적 특성 때문에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기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1970년대에 중동은 동아시아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한 2000년 이후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경제성장률 자체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급락을 막는 것은 체제의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중동경제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걸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경제 외적 요인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대립한 세 차례의 중동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1980~88년에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있었으며 1991년과 2003년에는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전쟁이 발발하면 페르시아만 지역 전체가 위험하게 되므로 국내 경제활동과 대외 경제관계가 크게 위축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GCC 국

가의 경우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주변국의 정세로부터 매우 독립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 GCC 국가의 경제성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걸프지역 경제에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다. 걸프지역에서는 정부의 경제개입이 광범위하고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저개발 상태에서 나타나는 개도국에서의 공통된 현상이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걸프지역의 경우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이 지난 30여 년간 계속 2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 역시 석유의존적 경제구조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걸프지역의 정부는 모두 분배국가(allocation state) 혹은 지대수입형 국가(rentier state)의 성격을 갖고 있다.[1] 즉 정부가 석유나 가스 등 천연자원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유전자원을 직접 개발하거나 관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보조금의 형태로 국민에게 배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면, 생산, 교환, 분배의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직접 설립하고 경영할 뿐만 아니라, 무역장벽을 통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보호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서 나아가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경제적 개입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을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모든 걸프지역 국가들이 최근에는 정부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영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에너지 비중이 높은 한 이러한 노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넷째, 현지인의 실질적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외국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1) 지대수입형 국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Beblawi and Luciani eds.(1987) 참고.

높다. 현지인의 경우 국가가 직・간접적인 보조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상당정도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유인이 매우 낮다.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 외에도 이슬람적인 전통과 관행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한 요인이다. 정부가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경우 교육이나 인적자본의 축적 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걸프지역에서 현지인에 대해서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지만 고등교육까지 이수하는 비율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낮다. 이처럼 낮은 경제활동 참가 유인과 인적자본 축적 유인 때문에 현지인의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인의 노동기피 현상이나 낮은 노동생산성은 결국 외국노동력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란을 제외한 걸프지역에서는 생산직 노동의 대부분을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나 인접한 아랍국가에서 유입된 외국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GCC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약 63%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인력 중 외국인의 비중은 이보다 더 높아 평균적으로 75%에 이르고 있다. 실업률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평균 10%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데,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업률은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현지인 인구증

▌표 2-1. GCC 국가의 인구 구성(2004년 기준) ▌

(단위: 천 명, %)

국가	자국민 수	비중	외국인 수	비중	전체 인구	실업률
사우디	16,529	72.9	6,114	27.1	22,674	15.0
UAE	722	19.0	3,278	81.0	4,000	3.0
쿠웨이트	943	35.6	1,707	64.4	2,650	4.9
오만	2,326	80.1	577	19.9	2,903	17.5
카타르	223	30.0	521	70.0	744	3.0
바레인	438	62.0	269	38.0	707	17.5
GCC 전체	21,184	62.9	12,486	37.1	33,678	-

자료: Gulf Research Center(2007).

가 정책과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걸프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2)]

2. 최근의 경제동향

최근 걸프지역 경제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국의 경제규모와 경제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현재 GCC 6개국의 전체 경제규모는 7,067억 달러이고 이란과 이라크는 2004년에 각각 1,614억 달러와 255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걸프지역 전체로 보면 전체 경제규모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를 보면 이란이 약 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표 2-2. 걸프지역 국가의 주요 지표(2006년) ▌

국가	GDP (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인구 (백만 명)	수출액 (억 달러)	수입액 (억 달러)	석유생산량 (천 b/d)
사우디아라비아	3,474	13,700	25.3	2,078	642	10,859
UAE	1,621	33,100	4.9	1,363	889	2,969
쿠웨이트	962	30,000	3.2	557	167	2,704
오만	348	13,400	2.6	233	102	743
카타르	506	56,200	0.9	306	124	1,133
바레인	156	22,300	0.7	123	90	-
GCC	7,067	18,800	37.6	4,660	2,014	18,408
이란*	1,614	2,350	66.8	444	366	4,081
이라크*	255	942	27.1	178	196	2,027
GCC+2*	6,606	7,599	129.1	3,407	1,817	23,738
한국*	8,880	18,938	48.7	3,318	3,02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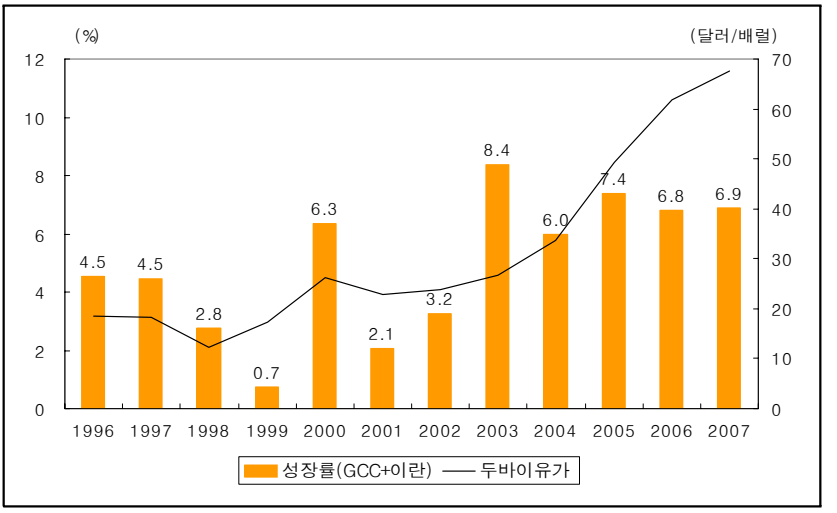
주: *는 2004년도 수치임.
자료: EIU; IMF(2006c); BP(2006).

2)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서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노동력과 현재의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 동안 약 1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최소한 6~7%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다.

대국이고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가 2,000만~3,000만 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나머지 5개 나라는 모두 500만 명 미만의 소국이다. GCC의 경우 경제규모, 인구, 국토 면적 등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여타 국가간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자원 덕분에 GCC의 1인당 평균 GDP는 2만 달러에 가까운데, 인구가 적은 카타르, UAE, 쿠웨이트 등이 매우 높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이 비교적 낮다. 이란은 인구대국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전쟁 후유증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의 영향 때문에 소득수준이 아직 3,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라크 역시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전쟁과 후세인 통치 기간의 경제적 핍박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1,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역액을 보면 2006년 GCC 전체 수출액은 4,304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2,014억 달러로 연간 무역수지 흑자가 2,000억 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다. 수출의 거의 대부분은 원유와 천연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은 최종소비재와

▌그림 2-2. 걸프지역의 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의 관계 ▌



주: 2007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2006d).

플랜트 건설에 사용되는 장비 및 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CC와 이란, 이라크를 포함하면 수입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수출규모는 최근의 유가 급등 때문에 우리를 훨씬 추월하여 약 5,000억 달러에 이른다. 2000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근 5년간 교역액이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흑자규모 역시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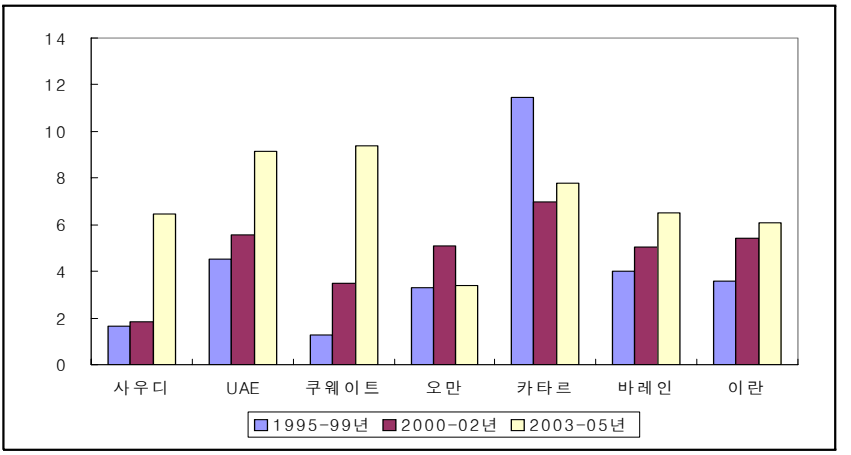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유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60%, 천연가스 매장량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생산량은 2006년 현재 하루 약 2,400만 배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2,730억 입방미터로,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10%에 불과하지만 매장량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그림 2-2]와 같이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라크 전쟁의 종결로 국제적 불안요인이 해소된 2003년 이후부터 특히 높아졌다. 그리고 석유수출국이 밀집한 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2000년과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라크를 제외한 이 지역 평균 실질성장률은 2.9%였는데,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1998년과 1999년에는 이 지역 역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세계경제 회복과 OPEC의 적극적인 감산 덕분에 2000년에 국제유가가 50% 이상 상승하자 이 지역의 경제도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률이 단숨에 6.3%까지 뛰어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은 새로운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 첫 해이며 중동경제의 붐이 시작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1년과 2002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크게 둔화되었지만 이것은 지정학적 위험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즉 9・11 사태와 그 후 미국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이라크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3년간 이

지역 평균 성장률은 7%에 이르렀으며, IMF 따르면 2006년에도 성장률이 6.8%를 기록하였다.[3] 이처럼 높은 중동지역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은 그만큼 빨리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이 지역의 높은 인구증가율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GCC 국가의 국민소득 증가율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3.3%와 3.9%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위소득국가나 개도국의 평균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높은 인구증가율은 현지인의 출산율이 높은 데도 그 이유가 있으나, 경기 활황과 건설・플랜트 투자의 증가로 생산직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한 것에도 기인한다. 예를 들어 중동의 물류 중심지이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두바이의 경우 최근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3. 걸프지역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IMF(2006d).

국가별로 보면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 IMF(2006a)의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GCC와 이란의 가중평균 성장률을 계산하였다.

이 나라들이 이라크와 인접하여 이라크 전쟁 종결의 영향을 크게 받고, 거대 산유국으로 유가상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석유매장량이 많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오만의 경우 최근 성장률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리고 성장률의 변동폭을 보면 경제구조가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제가 역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류와 관광 등 비에너지 분야가 비교적 발달한 두바이가 포함된 UAE는 1990년 후반 이후 4%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동의 금융중심지인 바레인이나 비교적 발달된 제조업을 보유한 이란 역시 성장률 변동이 크지 않다.

3. 경제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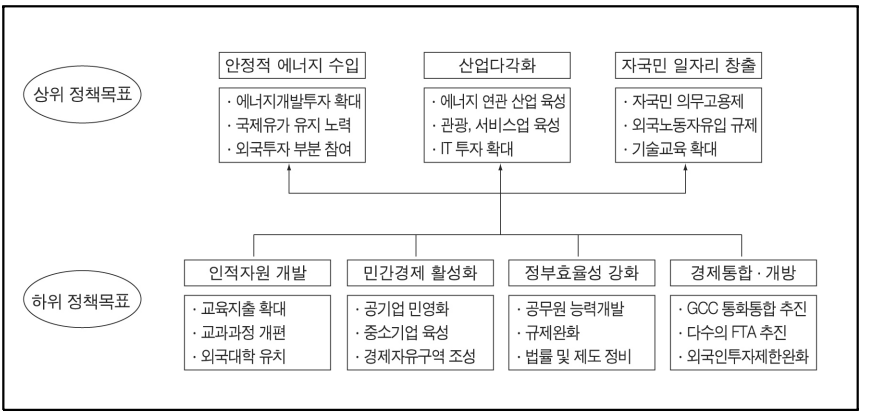
걸프지역의 산유국들은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산업구조상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경제발전 전략도 매우 유사하다. 특히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에너지산업 이외에 특별한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GCC 6개국은 모두 비슷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도 매우 유사하다. 다만 이라크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할 석유 부문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 틀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안정과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기업 참여 및 수익분배에 관한 종족간 합의를 도출하고 유전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인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은 막대한 에너지자원은 물론 상대적으로 다양한 산업과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과의 대립과 경제적 제재 때문에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 및 서방과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상황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 보수강경파가 집권하면서 그 이전에 추진되는 경제개혁 조치들마저 좌절되고 정치문제가 경제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이란과 이라크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두 나라의 경제발전 전략을 심도있게 다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경제정책의 방향이 비교적 확고한 GCC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걸프지역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석유와 천연가스, 즉 에너지 부문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첫째 목표가 비교적 단기적인 정책목표라면 뒤의 두 가지 목표는 장기적인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정책목표들은 모두 이 세 가지 상위목표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 획득하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다각화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유가급락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자원 고갈 이후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자국민을 위한

▌그림 2-4. 중동 산유국의 주요 경제정책목표와 정책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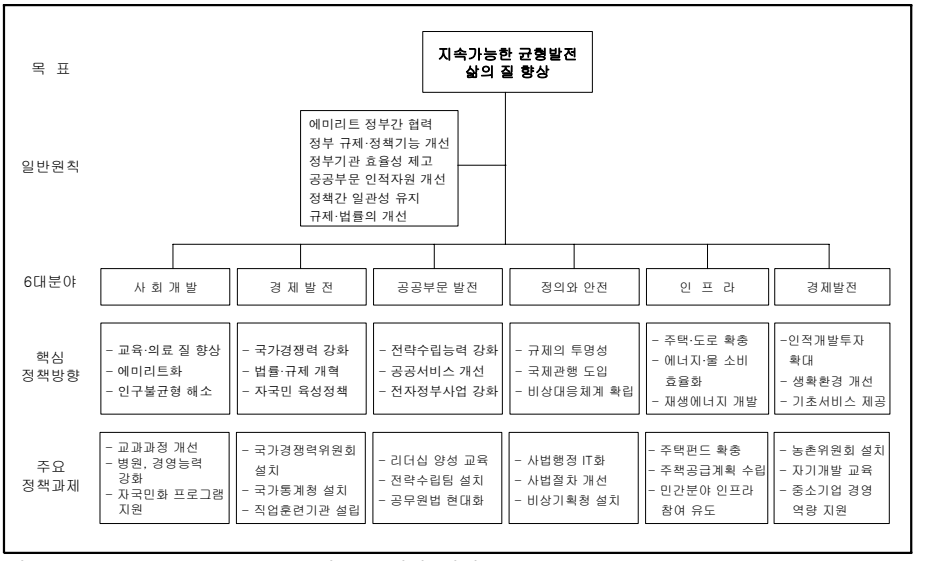


자료: 필자 작성.

일자리 창출은 높은 인구증가율에 따른 청년실업자 증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외국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구조나 경제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1990년대 중반이후 중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즉 국가가 석유나 천연가스 판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국민에게 각종 보조금의 형식으로 배분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팽창을 통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방식의 경제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지대수입형' 경제체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우선 국민들이 정부의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이 거의 상실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유인이 매우 낮아 인적자본의 축적이 부진하였다. 내생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노동규율(work discipline)마저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림 2-5. UAE의 연방정부 종합전략(2007년) 개요 ▐



자료: UAE Government(2007)를 기초로 필자 정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의 결과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낮아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정책 집행, 투명하고 신속한 제도적 환경 구축과 같은 부문에서 심각한 장애에 직면하였다. 산업구조가 단순하여 국제경제관계가 에너지교역으로 단순화되고 외국인투자가 극히 부진하여 산업발전이 지체되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표 2-3 사우디아라비아의 제8차 5개년 계획(2005~2009년) 개요 ▐

최종 정책목표	이슬람의 가치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며, 모든 국민에게 고용기회와 경제적 복지, 양질의 교육,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획득을 지원하는 다각화되고 번영하는 경제
국내외의 도전	〈국내적 도전〉 - 높은 인구증가율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 삶의 질 개선 과제 -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증가, 높은 실업률(2005년 총 노동력의 7%) - 수자원의 낭비와 안정적 공급 과제 - 세계적 수준과의 기술격차 - 노동력의 기술 및 숙련도 향상 과제 〈국제적 도전〉 - 세계화와 경제통합 가속화 - 자원보다는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 증대 - 국제금융시장 및 자원시장의 불안정 심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증가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적 경쟁
주요 발전전략	- 사우디 인력의 참여확대, 외국 인력의 사우디인으로의 대체 - 이슬람 전통의 유지하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지역균형발전, 저소득 계층 보호 -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발전 -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 수요에 부합한 인프라 확대 - 민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외국인투자 촉진 - 공공부문 민영화, 국민의 자산소유 확대 - 관광 및 관련분야 육성, 환경 및 문화재 보존 -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채택 - 과학기술의 발전, ICT 기술의 응용 - 공공채무 감축 - 수자원 통합관리, 수자원 개발 및 보존 기술 발전 - GCC와의 경제통합 촉진, 기타 아랍국가와의 관계 강화

자료: Saudi Arabia Government(2006)를 기초로 필자 정리.

확립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역시 걸프지역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공공부문 개혁, 경제통합과 개방, 기업민영화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등이 현재 중동 걸프지역의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표 2-3]에 정리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8차 5개년 계획이나 [그림 2-5]의 UAE의 연방정부 종합발전전략들을 살펴보면,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상위의 정책목표와 거기서 파생된 네 가지의 2차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을 정리할 것이다.

가. 석유수입의 안정적 유지

걸프지역 산유국들에게 석유나 천연가스의 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은 재정수입과 경제시스템 유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석유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 경제구조하에서는 최우선 과제이다. 석유는 걸프연안 산유국들이 모두 막대한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하다.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에게 석유 못지않게 중요하며 오만 역시 많은 양의 LNG를 수출하고 있다. 이란은 비교적 최근에 천연가스 생산에 참여하였는데, 앞으로 국내소비를 초과하는 양을 LNG나 PNG 형태로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외의 국가들에서 천연가스는 아직 중요한 수입원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도 많은 경우 석유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석유가격의 유지는 천연가스 수출 수입과도 직결된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로부터 얻는 수입이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에서 재정수입의 약 90%, GDP의 약 40%에 이르므로 유가하락은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1970년대에 1, 2차 오일붐 시기에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1986부터 급락하여 1990년대 말까지 이어지자 중동 산유국들은 경제성장 둔화, 국민소득 감소, 재정적자, 정부채무 증가, 실업률 상승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다.[4] 특히 석유수입이 감소하면 정부고용의 축소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하므로 사회적 불만과 불안을 야기하여 체제 전체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990년대의 국민소득이 석유가격이 정점에 이르렀던 1980년대 초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급락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기도 하였다.

석유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동 산유국들의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OPEC을 통해서 국제유가를 목표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 석유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석유나 천연가스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탐사 및 개발 부문, 즉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걸프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이라크의 6개국은 OPEC의 핵심 회원국으로 OPEC 산유량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OPEC 회원국들은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생산쿼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데, 걸프 산유국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가들이 OPEC의 생산쿼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생산쿼터를 초과하는 여유생산능력을 비교적 큰 폭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 가능한 생산량 폭도 그만큼 커 국제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동 OPEC 회원국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아랍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강고한 카르텔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1986년 쿼터 축소에 실패하면서 약 15년간 심각한 저유가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카르텔이 다시 복원되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석유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결속력이 강화되었으며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OPEC의 목표유가는 2003년까지만 해도 20달러대였지만 그후 국제유가의 급등이 계속되면서 40달러대,

4) 1980년대 이후 유가하락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경제악화의 경험에 대해서는 박복영(2004a)의 제2장을 참고할 수 있다.

50달러대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60달러대가 OPEC의 암묵적인 목표유가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유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세계경기가 둔화되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촉진되어 석유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동 산유국들은 최근에 증가하는 세계 석유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의 생산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걸프지역 국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세계 석유수요 증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강한 석유수요 증가세를 보면서 향후의 석유수요 증가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걸프국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석유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유가상승이 경기둔화와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져 석유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제유가가 3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석유파동 때와 같이 석유수요가 급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걸프지역 국가들에게 장래의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재생에너지나 바이오연료와 같은 대체에너지가 일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일 만큼은 아니며 수소에너지가 경제성을 지니기 위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GTL(Gas to Liquid), 오일샌드, 오일쉘과 같은 소위 비전통적 석유(non-conventional oil)의 개발도 촉진되고 있지만 이들이 전체 원유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통적인 원유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간은 여전히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추가적인 공급증가의 상당 부분은 걸프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5]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과 최근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석유수요 증가가 걸프국가들로 하여금 석유 생산능력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배경

5) IEA(2005)는 2030년에 1차 에너지원 중 석유의 비중이 현재의 35%보다 겨우 1%포인트 낮은 34%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오일머니가 유입되면서 그것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다. OPEC에 따르면 석유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이 지역에서 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가스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카타르의 North Pars와 이란의 South Pars의 개발 확대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걸프지역의 천연가스 생산은 현재 약 2,700억 입방미터에서 2010년에는 4,250억, 2020년에는 6,920억 입방미터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출이 대부분 아시아지역으로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유럽이 최대의 수출대상국이 되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카타르와 UAE만이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이었지만, 2010년이 되면 이란과 이라크가 천연가스 수출국에 편입되는 반면 UAE의 수출 비중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6)]

▌표 2-4. 걸프지역 각국의 에너지개발 계획(2006년 말 현재) ▐

국가	원유 생산능력 (배럴/일)	천연가스 생산량	특징
사우디	1,250만(2009년)	하루 2억m^3 (2010년)	여유생산능력 150만~200만 b/d 유지 목표
UAE	300만(2006년)	n.a.	외국석유기업의 참여에 가장 개방적인 제도
쿠웨이트	300만(2010년)	n.a.	'프로젝트 쿠웨이트'에 외국기업 참여 허용여부 논란 중
카타르	100만 이상(2009년)	LNG 7,700만 톤/연 (2011년)	2012년까지 GTL 생산능력을 50만b/d까지 확충
이란	480만(2010년)	하루 8억m3 (2010년)	석유생산목표 달성 위해 외국 기술과 자본 필요
이라크	400만(2010년)	n.a.	종파간 갈등으로 석유개발 관련 제도 불투명

주: 괄호 안의 연도는 목표시점을 가리킴.
자료: IEA, EIA, OPEC, MEED 등을 이용하여 필자 정리.

6) IEA(2005), pp. 172~182.

나. 산업다각화

걸프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원 고갈에 대비한 비석유산업의 육성, 즉 산업다각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조업이나 농업,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미래를 대비하는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걸프국가의 가장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1980년대 이후 산업다각화가 20년 이상 추진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바레인의 금융업, UAE 두바이의 서비스산업 발전 등 일부를 제외하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평가이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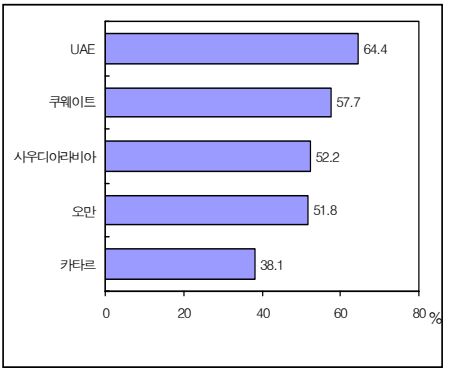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산업다각화의 노력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오일머니가 유입되어 투자재원이 풍부해지자 산업다각화 노력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에너지연관산업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산업 등이 주요 육성대상이다. 이러한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서비스산업 역시 정부가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 관광,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등을 주요 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대부분 경제자유구역(economic free zone) 조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걸프지역 국가 중 산업다각화에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곳은 UAE의 두바이이다. 그리고 걸프지역 국가의 대부분은 두바이를 벤치마킹하여 산업다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UAE 혹은 두바이의 산업다각화의 예를 통해 최근 이 지역의 산업다각화 노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UAE는 GCC 국가들 중 석유생산이 미미한 바레인을 제외하면 GDP 중 비석유분야 비중이 64.4%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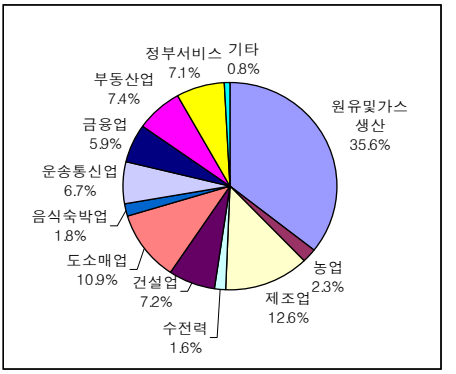
7) 1990년대까지 GCC의 산업다각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ESCWA(2001).

이 12.6%로 비교적 높고 특히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UAE가 다각화에 앞선 것은 1970년대부터 두바이를 중심으로 일찍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걸프지역의 중계무역항으로 가공무역, 금융업, 관광업 등이 일부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6. 중동 주요국 비석유문야 비중▐



▌그림 2-7. UAE의 산업별 GDP 구성▐



주: 2005~06년 추정치임.
자료: UAE Minister of Presidential Affairs and National Media Council(2007); EIU.

산업다각화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풍부하고 저렴한 석유 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연관산업이었다. UAE의 제조업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비료, 의약품 등 에너지 연관산업이며 이 분야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은 저렴한 원료비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인데,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등이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운스트림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나프타가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높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생산이 부족하여 카타르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공급받는 돌핀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화학산업은 산업다각화에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류부문에 가까운 분야만 발전해 있고 자본 및 원료집약적인 성격 때문

에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외에 UAE는 DUBAL 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공장을 이미 1970년대에 설립하였으며 비료나 제약산업 등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 모두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다.

기타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재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부분적인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도만 육성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에너지 관련분야를 제외하면 알루미늄과 건축자재 분야가 발전되고 있고, 그 외에 제지, 식품, 의류, 가구, 가정용품 등이 일부 존재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건설붐과 더불어 제철 및 시멘트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5. UAE의 제조업 분야별 현황과 다각화 추진 동향▐

산업	현황	다각화 노력
석유화학	Abu Dhabi Polymers Company가 연산 60만톤의 에틸렌, 폴리에틸렌 등 생산	Borouge-2 확장공사(에틸렌 연산 140만 톤) 등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프로젝트 진행 중
화학비료	천연가스에 기반한 4개의 화학비료공장이 있으며, 요소 및 질소비료를 생산하여 수출	아부다비의 Fertil(연산 50만 톤)은 설비 확장 중이며, 두바이는 Adfert 등 3개 공장 보유
제약업	Gulf Pharmaceutical Industry(7개 공장) 등 10여개 업체가 존재	Neopharma, Globalpharma, Medpharma의 3개 업체가 최근 신설되는 등 확장 추세
알루미늄	낮은 전력요금을 경쟁력으로 하여 1979년에 Aluminium Dubai(DUBAL)를 설립	아부다비는 DUBAL과 합작으로 연산 120만 톤의 세계 최대 단일제련공장 건설 추진 중
제철	연산 50만 톤의 봉강을 생산하는 제철소가 있으나 국내수요(250만 톤)에 크게 못 미침	시설확충 중이며 400만 톤 규모의 Emirates Iron and Steel Factory 설립계획
시멘트	Union시멘트(UCC), 걸프시멘트(GCEM), 샤르자시멘트(SCIDC) 등 8개의 회사	최근 건설붐과 더불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증축도 급속히 진행

걸프국가들은 정보화에 부응하여 모두 정보통신(ICT) 부문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UAE는 비교적 발전되고 기술적으로도 앞선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무선전화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며 인터넷보급률도 중동지역 중 최고 수준이다. 최근까지 국영통신사인 Etisalat에게 유선 및 무선통신의 독점

권을 보장해 주어 통신산업을 육성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인근 아랍국가나 북서아프리카국가의 통신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중동 ICT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Dubai Internet City를 조성해 현재 700여 개의 ICT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발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족한 인적자원과 기술수준 때문에 제조업의 성장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분야는 걸프지역 국가의 산업다각화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분야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금융, 부동산, 관광분야 등이다. 최근 UAE의 금융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오일머니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민영화 등 기업 IPO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성장, 부동산개발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의 증가 등의 결과이다. UAE는 국내금융기관의 육성을 위해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 분야에서는 바레인과 경쟁하기 위해 두바이국제금융시장(DIFX)을 개장하여 국제금융상품과 원유선물 거래 등을 시작하였다. 부동산개발 역시 매우 활기를 띠고 있는데, 정부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부동산 소유규제 완화, 부동산관련 금융수단의 발전, 급격한 인구증가 등이 최근 부동산 붐의 배경이 되고 있다. 두바이에 이어 최근에는 아부다비까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개발에 참여했는데, 관광 및 문화 허브를 목표로 약 500억 달러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UAE는 관광산업을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설정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두바이는 이미 세계적인 관광중심지가 되었고 아부다비는 두바이를 능가하는 문화관광의 허브를 목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해양스포츠, 고급휴양지, 쇼핑에 고급문화 요소를 가미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루브르, 구겐하임 등 세계 최고수준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등과 제휴하고 있다.

다. 자국민의 고용 확대

걸프지역 산유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 구성이나 노동력 구성에 있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1970년대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건설공사 확대 등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자국의 노동력은 충분하지 않자 손쉽게 외국인력을 끌어들여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노동이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은 외국인에게만 이루어져 자국민의 인적자본 축적이 지체되고 있다. 둘째, 자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에만 안주하려는 소위 '화이트칼라 근성(white collar mentality)'이 굳어져 육체노동을 극도로 기피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유인이 매우 약해졌다.[8] 셋째, 그 결과 자국민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생산성과 근로의욕이 낮은 자국민의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외국근로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회통합이나 안정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최근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 그리고 주택임대료 급등에 대한 외국근로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태업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걸프지역 산유국들의 인식이다. 세계 어느 지역도 전체 노동력의 70~80%를 외국인에 의존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예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구성의 변화도 정책담당자를 압박하고 있는데 GCC에서는 15세 이하 인구의 비율이 41%에 이르며, 자국민의 실업률은 9~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 지역 정부들은 자국민의 고용촉진 및 자국민에 의한 외국인력의 대체를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흔히 자국민화(nationalization)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8) UAE의 경우 전체 노동력 중 자국민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데,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그 비중이 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자국민은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자국민 비중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는 사우디화(Saudization), UAE에서는 에미리트화(Emiratization), 오만에서는 오만화(Omanization) 등으로 불린다.

자국민화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 규제는 과거에는 외국노동력이 담당하던 특정 부문에 외국인의 취업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는 석유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오만과 바레인인데, 오만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과일과 채소의 판매 및 운송, 그리고 이동전화판매, 미장원, 사진관 등의 부문에 외국인의 취업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최대 산업인 LNG 분야에서는 자국민화 정책에 의해 2004년에 전체 직원의 73%가 오만인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일부 민간부문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2003년 이후 약 20%가 감소했으며, 최근 4년간 전체적으로 13만 4,000명의 외국인이 일자리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에 10년 이내에 외국인노동력을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2013년까지 300만 명의 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들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사우디인들을 위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하였으며, 내국인만 취업할 수 있는 직업으로 기존의 34개 부문에 더하여 22개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 직업에

▌표 2-6. GCC 국가의 주요 노동력 지표(2003년 기준) ▌

(단위: 백만 명, %)

국가	총 노동인력	인구대비 노동력 비율	노동인력 증가율	외국인 노동자 비중	여성노동자 비중
사우디	7.7	28	3.4	69	19
UAE	2.0	42	2.0	90	13
쿠웨이트	0.9	38	2.8	84	24
오만	1.2	30	3.7	60	20
카타르	0.3	55	1.9	83	17
바레인	0.3	43	2.7	60	21
GCC 전체	**12.5**	**39**	**2.8**	**75**	**19**

자료: Arab Monetary Fund(2003).

9) Janardhan(2007).

는 행정 책임자 및 그 조원, 조달책임자, 비서직, 자동차판매원, 홍보인력, 여행업 및 귀금속업 종사자 등이 포함되었다.

UAE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UAE 정부는 최근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회사는 인사, 비서, 인력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모두 자국민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자국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직접적인 규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우선 민간기업에 이를 강요해도 기업이 현지인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지인의 생산성이 외국인에 대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무직종이 아닌 경우 현지인들도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지정부는 고용촉진과 산업다각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국민 고용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지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러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현지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규율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적자원 개발

걸프지역 산유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양질의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육훈련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가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많은 경우 일자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이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인적자본을 축적해야 할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무상교육을 제공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소득수준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부 국가의 공교육 교과과정 중에서 종교 교육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도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정부정책에서 여전히 이슬람의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원리 이해나 코란 암송과 같은 교육이 교과과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종교 교육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대중이나 종교지도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쉽게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걸프 산유국의 교육문제는 기초교육이 아니라 대학교육 혹은 직업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들의 문자해독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80~90%에 이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덕분에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기관의 입학률은 95~99%에 이를 정도로 높다. 하지만 중등교육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진학을 포기하고 구직활동에 나서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지역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부재정의 많은 부분을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06년에 전체 예산의 25%를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교원들의 양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및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자국민의 인적자본 축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UAE의 두바이는 경제특구 중의 하나인 '날리지빌리지(Knowledge Village)'를 설립하여 외국대학의 캠퍼스와 글로벌기업의 R&D 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카타르는 왕비의 주도로 '에듀케이션시티(Education City)'를 설립하여 해외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자국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에너지산업, 유전개발 등 광업, 플랜트산업, 엔지니어링업 등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T 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여자대학교를 설립하고 디자인 등 여

성을 위한 전문적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최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을 보면 걸프 지역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근 10여 년간 대학진학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991년 10.3에서 2004년에는 27.7%로 2배 이상 높아졌으며, UAE는 7.6%에서 22.5%로 3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바레인은 GCC 국가 중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만, 이란, 이라크에서도 이 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카타르의 경우 이 비율이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으며 쿠웨이트와 예멘에서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진학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동기가 약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대학진학은 실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구직과 관련된 학습과 훈련에 몰두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오일머니를 이용하여 정부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교육 동기를 오히려 쇠퇴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국민화 정책을 위해 외국노동력을 강제로 자국민으로 교체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교육이나 인

▌표 2-7. 걸프지역 국가의 대학진학률 추이▐

(단위: %)

국가	1991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	10.3	20.3	22.2	22.7	22.5	25.9	27.7
UAE	7.6	18.6	19.0	23.7	23.3	22.5	..
쿠웨이트	..	23.2	..	..	..	..	22.3
오만	4.1	..	7.8	7.8	7.7	..	12.9
카타르	23.2	25.0	..	21.1	19.7	17.8	18.3
바레인	17.6	21.0	..	..	..	34.7	34.4
예멘	..	10.4	10.4	..	..	..	9.4
이란	10.2	18.8	19.0	20.2	19.3	20.3	22.5
이라크	..	11.5	12.0	..	12.5	..	15.4

자료: World Bank(2006b).

적자본 축적의 의지를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현지인의 고용을 여전히 매우 기피한다는 것은 현지인의 인적자본 축적이 여전히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마. 경제개혁

20년 이상 산업다각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걸프지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즉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대수입형 국가'로서 정부가 압도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민간경제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절차, 부패와 같은 거버넌스상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내국인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걸프지역의 외국인투자 실적은 1990년대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경제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프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10] 경제개혁의 방향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정부역할 축소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와 보조금 축소,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GCC 지역에서 민영화는 정책적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2년 이후 민영화가 크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는

10) 1990년대 이후 중동국가들의 경제개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복영(2004)과 박복영 외(2006)의 제3장을 참고할 수 있다.

주로 통신, 전력, 항공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주식을 공개하여 부분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간산업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소유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기업과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각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유가 상승 이전에는 민영화의 실질적 목적이 재정수입 증대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민에게 국부의 일부를 환원하고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자본시장을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IPO시 주식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소유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형태에 그치고 경영권까지 민간에 이양하는 형태로 진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부문의 활성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규제의 완화 역시 2000년 이후 걸프지역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변화 중 하나이다. 그 이전까지 바레인을 제외하면 걸프지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하고 투자환경도 매우 열악한 지역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지분이 49%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도소매와 같은 소규모 투자의 경우도 내국인 파트너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위 스폰서제도(sponsorship)가 있었다. 그리고 자국민의 고용 확대를 위해 현지인의 의무고용비율이 있었으며, 걸프지역의 가장 유망한 투자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패나 관료주의와 같은 심각한 행정 비효율성도 투자의 큰 장애 요인이었다. 2000년 이후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모든 걸프지역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은 최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9%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와 스폰서제도를 철폐하고,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며 법인세 감면 등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외국인투자 지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보수파의

의회 장악과 2005년 보수파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다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UAE도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와 스폰서제도의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덕분에 걸프지역의 투자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 따르면 [표 2-9]에 정리된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은 155개 평가대상 국가 중 상위 1/3에 포함되었다. 반면 아직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는 UAE는 69위에 머물렀으며 이란은 10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문별로 보면 세율이 낮고 소유권 등록이 용이하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타 행정절차나 투자자보호, 계약이행 등은 여전히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11)]

▌표 2-8. 최근 걸프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변화 ▌

국가	법안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투자법 제정 (2000년)	49% 외국인지분제한 폐지 스폰서제도 폐지 부동산 소유제한 완화
쿠웨이트	외국인투자법 제정 (2001년)	스폰서제도 폐지 외국기업 법인세 면세기간 연장
카타르	외국인투자법 제정 (2000년)	외국인지분 49%까지 허용 (관광, 의료, 교육 등은 100%까지 허용) 상장기업주식 25%까지 직접매입 허용
이란	외국인투자보호 및 촉진법 제정 (2002년)	비석유 부문 투자촉진 석유 부문 투자보장
UAE	상법 개정 (예정)	49% 외국인지분제한 폐지(안) 스폰서제도 폐지(안) 부동산 소유제한 완화(안)

자료: EIU country profile, MEED, 각국 정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필자 정리.

11) World Bank(2006c)는 정부 거버넌스 측면에서 걸프국가의 행정의 질이나 공공부문의 책임성(accountability)도 최근에 크게 개선되었지만 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표 2-9. 걸프지역 주요국의 부문별 기업환경 순위(2005년 기준) ▌

구분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이란
종합순위	38	69	47	51	108
창업	147	143	87	61	54
인허가	34	67	95	114	145
고용	28	73	26	33	112
소유권 등록	3	10	79	19	98
대출	56	104	52	147	64
투자자보호	74	96	71	50	138
세금	5	6	8	4	23
수출입	87	19	69	79	132
계약이행	95	133	98	87	55
폐업	67	130	45	76	94

주: 155개 평가대상국 중 해당국 순위를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06a).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걸프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에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추세는 과거와 거의 변화가 없으며 각국의 외국인투자규모가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서는 투자가 오히려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다만 과거부터 비교적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던 바레인과 오만에서는 투자가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석유의존적 경제구조, 양질의 노동력의 부족,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지속되는 한 일부의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중장기 경제전망

중동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중동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중동경제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GCC 경제에 대하여 대내외적 지정학적 안정 여부와 경제개혁 및 거버넌스 개선 여부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2025년까지의 GCC 경제를 전망하였다.[12)]

첫째는 '비옥한 걸프(Fertile Gulf)'라는 최상의 조건으로 설정된 시나리오로 이란 및 이라크의 지정학적 불안이 해소되어 걸프지역이 정치적 안정을 찾게 되고, GCC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경제개혁 및 정치・사회적 거버넌스 개선에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전망이다.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중동지역 정세 안정과 함께 세계경제가 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하고, 국제유가는 2012년경에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 2025년에는 배럴당 120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GCC 각국은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투자와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을 추진한다.

둘째 시나리오는 '오아시스(Oasis)'라는 것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분쟁은 지속되며, GCC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경제개혁 및 정치・사회적 거버넌스 개선에 일정수준 이상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전망이다.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세계경제가 4% 내외의 성장을 이루고, 세계경제의 연착륙과 비산유국의 산유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OPEC이 국제유가를 배럴당 40달러대에서 지지하게 되어 2016년에는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고 2025년에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GCC 국가들은 시장자유화가 아닌 상의하달식 정부주도 개혁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는 '모래폭풍(Standstorm)'이라는 시나리오로, 2009년경 이란과 미국의

12) World Economic Forum(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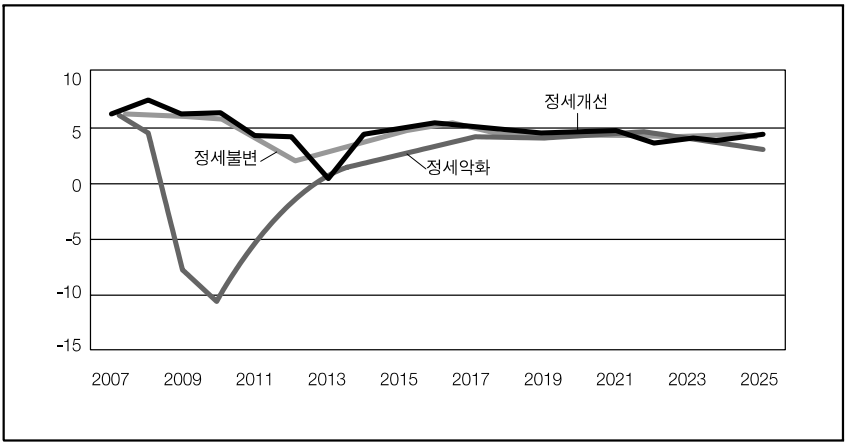
무력충돌과 같은 중동지역의 극단적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한편, 유가급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장기적으로 2% 수준의 세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극단적 외부환경으로 인해 GCC 국가들은 내부 개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설정하고 있다.

이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나리오별 GCC 중장기 경제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비옥한 걸프'와 '오아시스' 시나리오에서는 GCC가 중장기적으로 매년 5%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모래폭풍'의 경우 2009년부터 큰 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13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CC의 1인당 GDP의 경우 2006년 1만 2,000달러 수준에서, '비옥한 걸프'와 '오아시스' 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GDP가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에는 1만 6,000~1만 7,0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모래폭풍'의 경우 1인당 GDP가 급락하여 2014년에는 8,000달러까지 떨어지고 2025년에는 1만 달러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2-8. GCC의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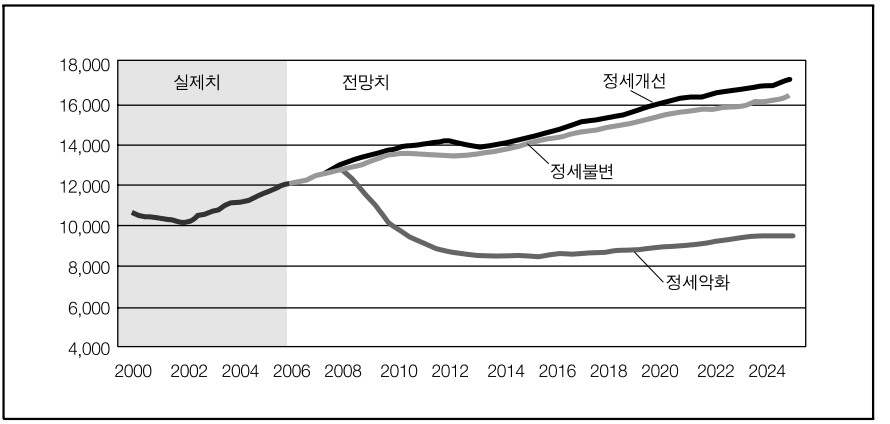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7).

▌그림 2-9. GCC의 시나리오별 1인당 GDP 전망 ▌

(단위: US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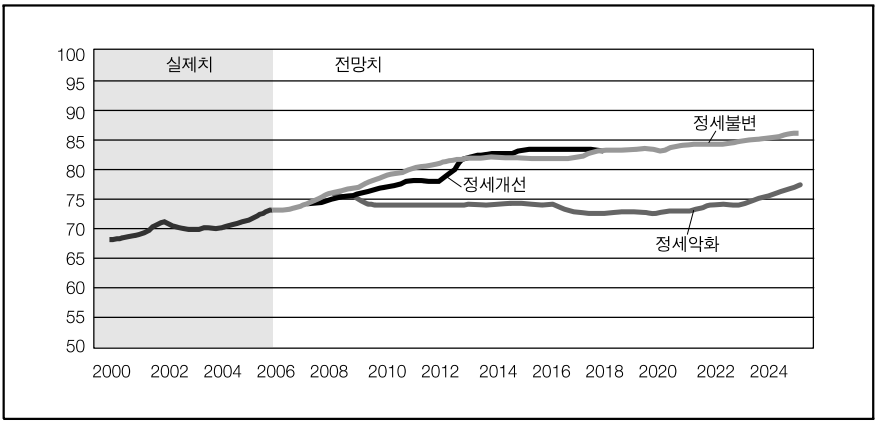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7).

GCC의 GDP 내 비석유 부문 비중 전망을 보면, 2006년 현재 약 73% 수준에서 '비옥한 걸프'와 '오아시스'의 경우 비석유 부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5년에는 GDP 내 비석유 부문의 비중이 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모래폭풍'의 경우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2025년까지 7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2-10. GCC의 시나리오별 GDP 내 비석유 부문 비중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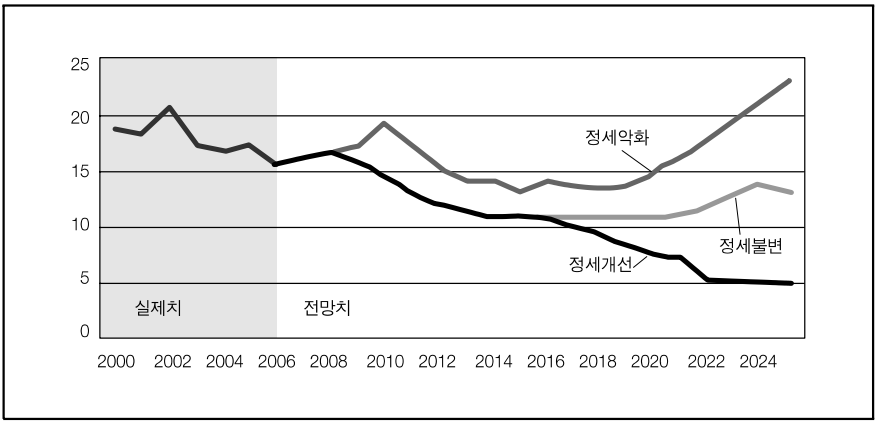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7).

▌그림 2-11. GCC의 시나리오별 실업률 전망▐

(단위: %)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7).

GCC의 실업률 전망을 보면, 2006년 현재 약 15% 수준에서 '비옥한 걸프'와 '오아시스'의 경우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여 2016년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비옥한 걸프'와 '오아시스' 간에 실업률 격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비옥한 걸프'의 경우 2025년경에 실업률이 5% 수준으로 하락하지만, '오아시스'의 경우 12~13%의 실업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모래폭풍'의 경우 실업률이 20% 이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3장
중동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1. 대외경제관계 현황
2. 대외경제정책

03 중동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1. 대외경제관계 현황

가. 교역 및 투자

1) 교역

중동의 교역규모는 고유가에 따른 수출 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가에 힘입어 200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 3,000억 달러 수준이던 교역규모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4,4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수출급증에 힘입어 2005년에는 9,130억 달러를 기록하여 5년 만에 교역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듬해인 2006년에는 중동 전체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표 3-1. 중동지역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수출	158,674	267,970	527,645	647,116
수입	140,954	174,128	385,523	443,632
무역수지	17,720	93,842	142,122	203,484
총교역	299,628	442,098	913,168	1,090,748

자료: IMF(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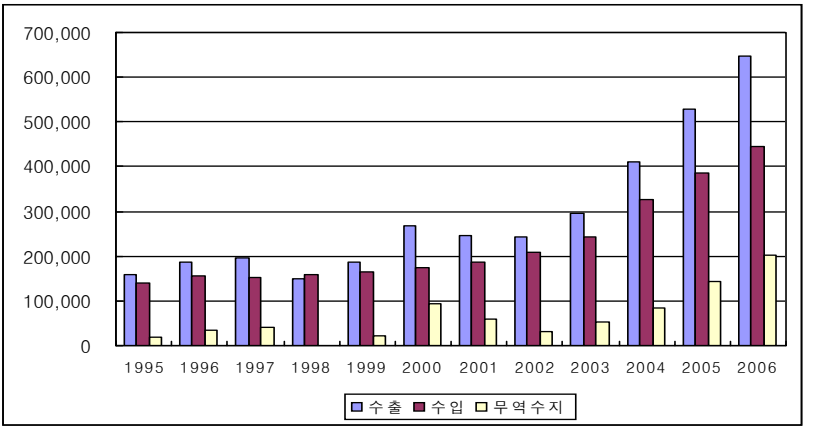
중동 수출은 2002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중동 수출금액은 5,276억 달러로, 이는 5년 전인 2000년에 비해 거의 2배가 증가하였는데 2002년 이후 수출 증가세가 매우 가파름을 알 수 있다. 2006년 중동의 수출금액은 약 6,451억 달러로, 이는 2005년 수출금액 대비 약 23%가 증가한 것이다.

중동지역 수입 역시 2002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과 2000년의 중동지역 총수입액은 각각 1,410억 달러와 1,741억 달러로 5년간 약 23% 정도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3,855억 달러를 기록하며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 중동 총수입액은 4,436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5%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졌다.

수입증가세를 앞지르는 수출증가로 인해 중동지역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5년 177억 달러였던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0년에는 9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1,42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에는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중동 전체 수입금액의 46%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림 3-1. 중동지역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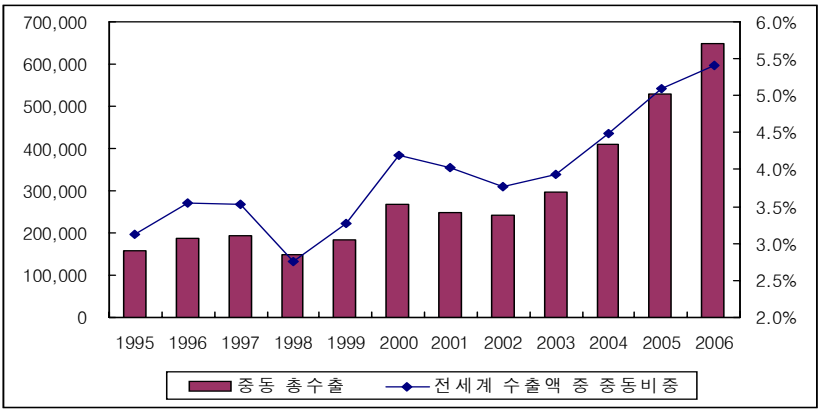


자료: IMF(2007).

2000년대 초반 이후 중동지역의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비중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전 세계 수출의 3.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던 중동 수출금액이 2002년 이후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5.4%를 기록하였다. 수입 역시 1990년

▌그림 3-2. 중동지역 수출 및 전세계 비중 추이(1995~200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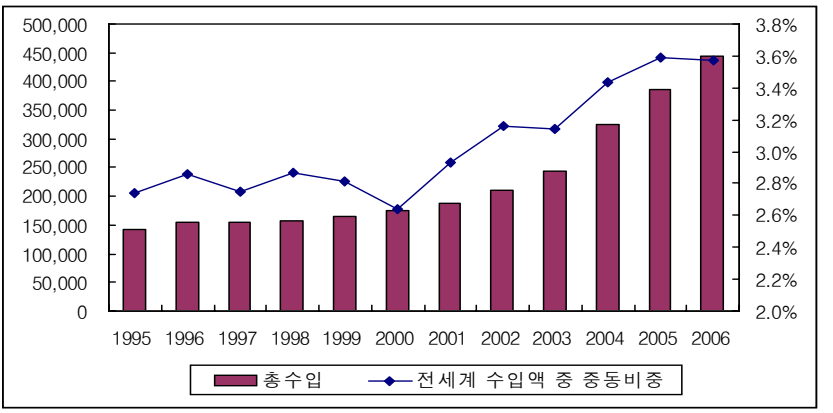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07).

▌그림 3-3. 중동지역 수입 및 전세계 비중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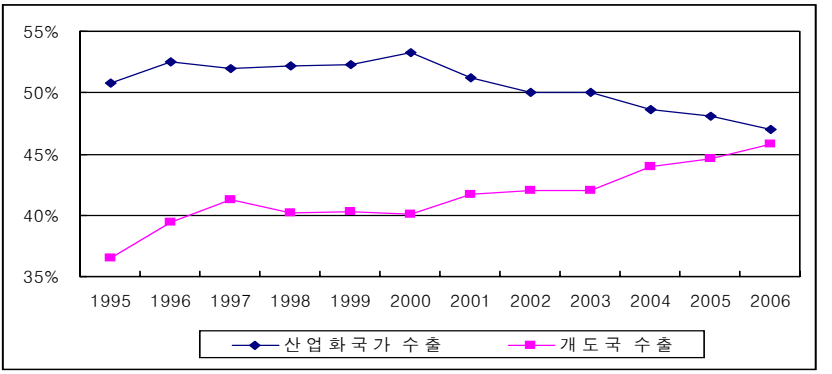
자료: IMF(2007).

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전 세계 수입의 2.7~2.9% 사이에 머물렀으나, 2002년 이후 수입 비중이 증가하여 2006년에는 중동지역의 수입이 전세계 수입액의 3.6%까지 증가하였다.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중동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동 교역의 또 다른 특징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교역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개도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4]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중동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산업화국가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중동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석유소비가 많은 선진국들로, 중동의 총수출 중 산업화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에 비해 20%포인트씩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데, 산업화국가에 대한 중동의 수출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여, 2006년에는 그 격차가 5%포인트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2000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급증하는 석유수요를 중동 산유국이 공급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중동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선진국이 아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중동의 수출대상국 유형별 수출비중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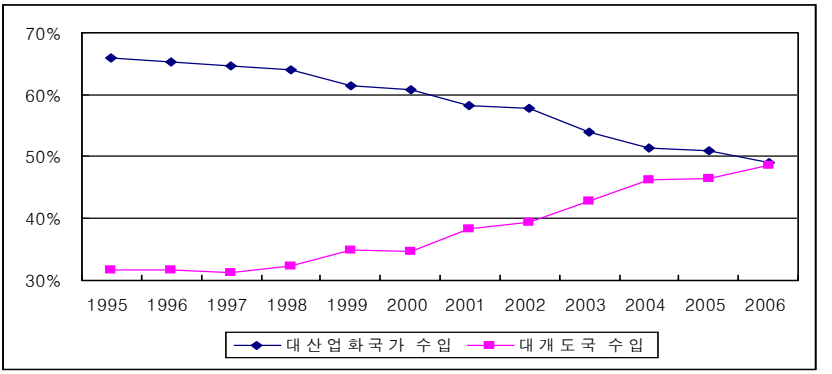


자료: IMF(2007).

중동지역의 유형별 수입대상국 역시 수출의 경우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 3-5]를 보면 산업화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의 감소 추세가 수출의 경우에 비해 더욱 극적임을 알 수 있다. 과거 중동국가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EU와 미국 등 산업화국가에 의존하였는데, 1995년의 경우 중동의 산업화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65%가 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입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에는 중동의 전체 수입금액 중 산업화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비중이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 원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도국의 저가상품이 중동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중동의 주요 수입대상국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중동의 수입대상국 유형별 수입비중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07).

중동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석유・가스 등 중동으로부터 에너지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중동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2006년 중동의 수출대상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이 중동 전체 수출금액의 15.7%를 차지하여 중동의 최대 수출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미국이 중동 전체 수출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동 전

체 수출의 8.3%를 차지하여 중동의 제3의 수출대상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이탈리아가 6.0%와 4.8%를 차지하고 있다. 중동의 20대 수출대상국 및 국가별 수출비중은 [표 3-2]와 같다.

중동의 20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1995년 이후 약 10년간의 수출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EU,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소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중동의 수출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중동 총수

▌표 3-2. 중동의 20대 수출대상국 및 수출 비중(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순위	중동 전체 수출액	158,674	267,970	527,645	647,116
1	일본	16.1%	16.7%	15.0%	15.7%
2	미국	10.3%	13.6%	11.9%	11.3%
3	한국	6.0%	8.6%	8.1%	8.3%
4	중국	1.2%	3.5%	5.4%	6.0%
5	이탈리아	5.7%	5.1%	4.7%	4.8%
6	싱가포르	3.3%	3.7%	3.4%	3.3%
7	태국	1.5%	2.2%	2.6%	2.6%
8	네덜란드	2.2%	2.6%	2.8%	2.5%
9	스페인	2.4%	2.2%	2.3%	2.3%
10	프랑스	2.9%	3.0%	2.6%	2.2%
11	독일	2.5%	2.8%	1.9%	2.1%
12	인도	2.8%	1.9%	1.9%	1.9%
13	터키	1.9%	1.4%	1.7%	1.8%
14	영국	2.7%	2.0%	1.8%	1.6%
15	남아공	0.9%	1.4%	0.6%	1.5%
16	파키스탄	0.8%	1.4%	1.3%	1.3%
17	UAE	2.1%	1.1%	1.2%	1.1%
18	시리아	0.2%	0.1%	1.1%	1.1%
19	벨기에	-	1.0%	1.3%	1.0%
20	그리스	1.2%	1.1%	0.9%	0.9%

자료: IMF(2007).

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경우 1.2%에서 2006년 6.0%로 지난 10년간 무려 4.8%포인트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총수출 중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도 1995년 6.0%에서 2006년 8.3%로 2.3%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인도의 경우, 중동의 인도에 대한 수출비중이 1995년 2.8%에서 2000년 1.9%로 하락한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도 1.9%를 기록하였다.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동의 인도에 대한 에너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증가세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동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등으로 이들 국가로부터 소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다. 2006년 중동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중동 전체 수입금액의 9.4%를 차지하여 중동의 최대 수입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중국이 중동 전체 수입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중동 전체 수입의 7.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이탈리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가 4.6%,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4.2%를 차지하고 있다. 중동의 20대 수입대상국 및 국가별 수입 비중은 [표 3-3]과 같다.

중동의 20대 수입대상국에 대한 1995년 이후 약 10년간의 수입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중동시장점유율이 현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중동 수입시장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진데, 1995년 13.5%를 기록했던 미국의 점유율이, 2006년에는 9.4%를 기록해 지난 10여년간 4.1%포인트가 하락하였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도 과거 10년간 1.5%포인트 내외의 점유율 하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중동 수입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중동 수입시장점유율 증가가 두드러진데, 중국의 중동 수입시장점유율은 1995년의 2.8%에서 2006년 8.2%로 무려 5.4%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중동수입시장점유율이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점유율도 1995년 2.2%에서 2006년 4.6%로 2.3%포인트 증가하였다. 한국의 중동 수입시장점유율 역시 1995년 2.8%에서 2006년 3.3%로 약 0.5%포인트 증가

▌표 3-3. 중동의 20대 수입대상국 및 수입 비중(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순위	중동 전체 수입액	140,954	174,128	385,523	443,632
1	미국	13.5%	12.4%	9.1%	9.4%
2	중국	2.8%	3.4%	6.9%	8.2%
3	독일	8.8%	7.5%	7.6%	7.3%
4	일본	6.4%	6.4%	5.1%	5.0%
5	이탈리아	6.6%	5.9%	4.9%	5.0%
6	인도	2.2%	2.6%	4.3%	4.6%
7	프랑스	5.0%	5.0%	4.6%	4.2%
8	영국	6.8%	6.0%	5.6%	4.2%
9	사우디아라비아	2.7%	2.7%	3.7%	3.8%
10	한국	2.8%	3.3%	3.2%	3.3%
11	UAE	1.8%	2.5%	2.9%	2.8%
12	터키	1.8%	1.4%	2.8%	2.7%
13	네덜란드	2.4%	2.5%	2.2%	2.4%
14	벨기에	-	3.4%	2.5%	2.3%
15	스위스	3.5%	2.9%	2.0%	2.0%
16	시리아	0.4%	0.5%	1.6%	1.7%
17	브라질	1.1%	1.2%	1.5%	1.6%
18	러시아	1.1%	1.4%	1.8%	1.5%
19	싱가포르	0.7%	0.9%	1.6%	1.4%
20	태국	1.0%	1.1%	1.2%	1.4%

자료: IMF(2007).

하여 중동의 10대 수입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중동 수입시장점유율 3.3%를 기록한 이후 중동시장점유율이 정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투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활성화로 인해 중동경제가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05년 누계액 기준으로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10조 달러

▌표 3-4. 세계 주요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2005년 누적액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세계	유럽	북미	동아시아	중남미
10,129,739	4,731,293	1,982,607	962,909	690 847
100.0%	46.7%	19.6%	9.5%	6.8%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기타
374,981	264,495	108,007	61,982	952,618
3.7%	2.6%	1.1%	0.6%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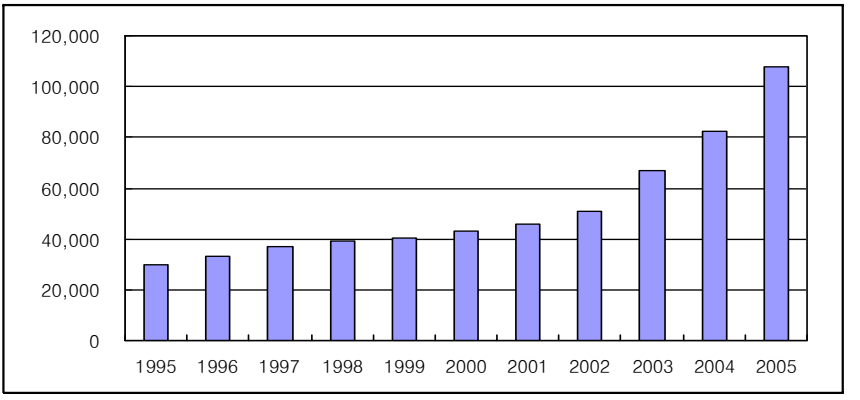
주: 중동은 바레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예멘 등 13개국 포함.
자료: UNCTAD(2006).

가 넘으며, 이 중 중동지역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1,080억 달러로 전체금액의 1.1%에 불과하다.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3.7%)와 아프리카(2.6%)에 비해서도 중동의 비중이 낮다.

하지만 최근 대중동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02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투자액은 2002년 이후 매년 3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며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2년 누적액 기준으로

▌그림 3-6. 대중동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 추이(1995~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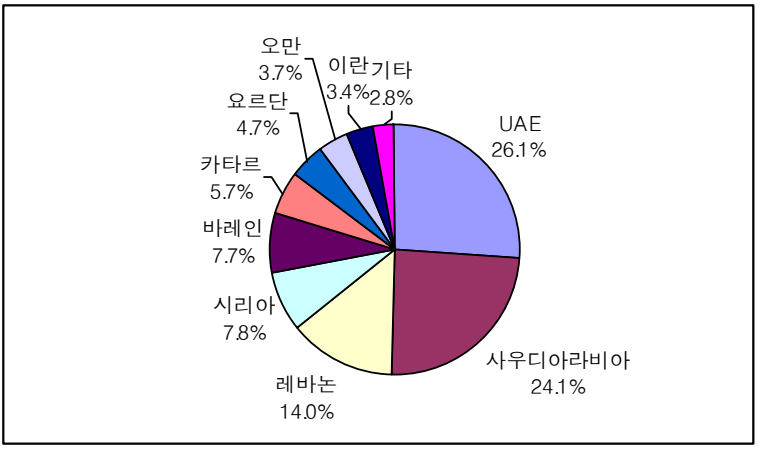


자료: UNCTAD(2006).

510억 달러를 기록했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3년에는 31.0% 증가한 66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는 23.4% 증가한 82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도 전년 대비 31.1% 증가하여 1,0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누적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액이 3년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그림 3-6 참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UAE가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이 282억 달러로 중동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26.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261억 달러로 24.1%를 차지하였다. GCC 국가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시리아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증가 추세인데, 레바논이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의 14.0%, 시리아가 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7. 중동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 비중(2005년) ▌



자료: UNCTAD(2006).

나.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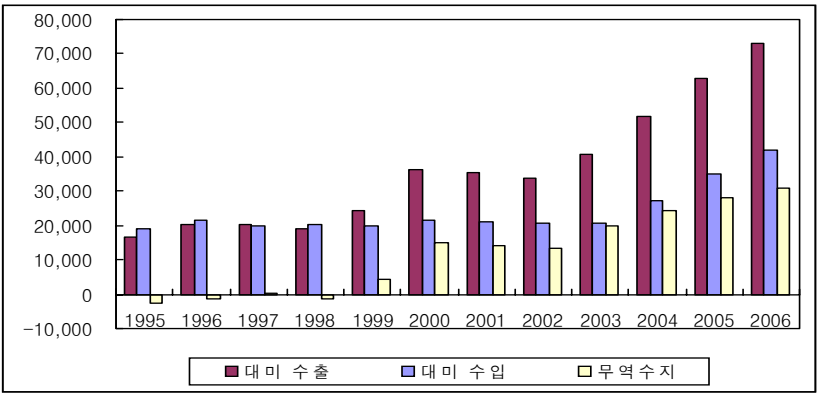
1) 미국

미국은 중동의 제2의 수출대상국이자 제1의 수입대상국으로, 중동의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 국가 중 가장 크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을 상대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경 중동지역은 미국을 상대로 소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폭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표 3-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의 중동수입시장점유율이 10년 전부터 하락하는 추세여서, 향후 중동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중동 지역 및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자동차와 보일러, 항공기, 전기기기 등을 수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와 항공기는 미국의 대중동 수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수출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이나 중동에 판매하는 비중은 23.7%이며, 항공기의 경우 대중동 수출비중이 18.5%로 미

▌그림 3-8. 중동의 대미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07).

▌표 3-5. 미국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비중	미국 총수출 내 비중
대중동 수출			22,127	100.0%	2.4%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245	23.7%	6.3%
2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333	19.6%	2.6%
3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4,094	18.5%	8.2%
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541	7.0%	1.2%
5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16	3.7%	1.5%
대GCC 수출			19,195	86.7%	2.1%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790	21.6%	5.8%
2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3,942	17.8%	7.9%
3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896	17.6%	2.3%
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45	5.2%	0.9%
5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643	2.9%	1.2%
대이란 수출			93	0.4%	0.0%
1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50	0.2%	2.2%
2	30	의료용품	18	0.1%	0.1%
3	47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7	0.0%	0.1%
4	12	채유용 종자 · 과실, 각종 종자 · 과실, 공업용 · 의약용식물, 짚 · 사료식물	6	0.0%	0.1%
5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6	0.0%	0.0%
대비산유국 수출			1,469	6.6%	0.2%
1	10	곡물	271	1.2%	2.4%
2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50	1.1%	0.3%
3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14	1.0%	0.1%
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91	0.4%	0.1%
5	93	무기 ·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70	0.3%	3.1%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표 3-6. 미국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입금액	수입비중	미국 총수입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입			48,524	100.0%	2.8%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3,195	89.0%	14.5%
2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상품	1,004	2.1%	1.8%
3	6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877	1.8%	2.5%
4	29	유기화학품	851	1.8%	2.0%
5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은 제외)	741	1.5%	1.9%
대GCC 수입			36,648	75.5%	2.1%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33,290	68.6%	11.2%
2	29	유기화학품	840	1.7%	2.0%
3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상품	608	1.3%	1.1%
4	31	비료	524	1.1%	12.8%
5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은 제외)	353	0.7%	0.9%
대이란 수입			178	0.4%	0.0%
1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132	0.3%	6.2%
2	97	예술품 · 수집품과 골동품	16	0.0%	0.3%
3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15	0.0%	0.3%
4	29	유기화학품	7	0.0%	0.0%
5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	0.0%	0.0%
대비산유국 수입			2,052	4.2%	0.1%
1	6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762	1.6%	2.2%
2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598	1.2%	0.2%
3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은 제외)	388	0.8%	1.0%
4	71	진주, 귀석 ·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 신변 장식용품, 주화	140	0.3%	0.4%
5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상품	58	0.1%	0.1%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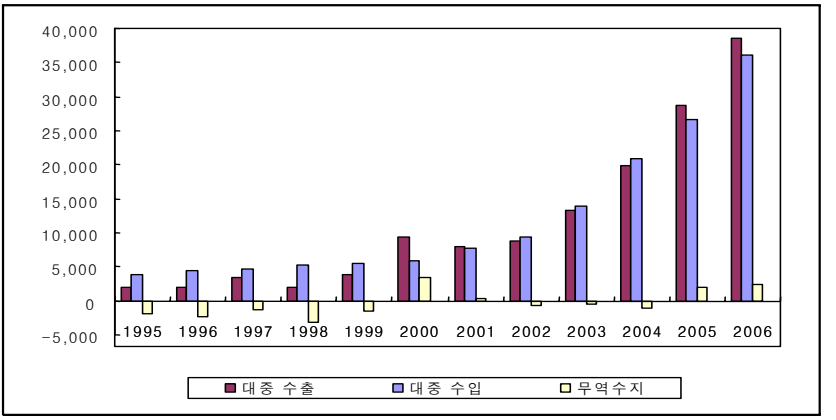
국 전체 수출비중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한편 대중동 수입금액의 89%를 원유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동 원유수입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동 수출의 약 87%, 수입의 76%가 GCC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GCC 지역이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이란의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교역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자동차와 보일러와 함께 곡물이 중동 비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것이 특징이며, 미국은 의류와 원유, 귀금속 등을 비산유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 중국

중국은 중동의 제4의 수출대상국이자 제2의 수입대상국으로 양국간 교역의 주요 특징은 2000년 이후 교역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에 88억 달러였던 중동의 대중 수출금액은 2006년 386억 달러로 4배가 증가하였으며, 수입금액 역시 2002년 95억 달러에서 2006년에 36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중동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을 상대로 소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 중국의 석유수입 증가로 인해 중국을 상

그림 3-9. 중동의 대중 교역 추이(1995~2006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07).

▌표 3-7. 중국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 번호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비중	중국 총수출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출			20,169	100.0%	2.6%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953	14.6%	2.0%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915	14.5%	1.7%
3	6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353	6.7%	4.4%
4	54	인조장섬유	1,172	5.8%	19.9%
5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58	4.7%	5.8%
대GCC 수출			13,746	68.2%	1.8%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997	9.9%	1.2%
2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890	9.4%	1.3%
3	6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230	6.1%	4.0%
4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은 제외)	738	3.7%	2.1%
5	54	인조장섬유	694	3.4%	11.8%
대이란 수출			3,292	16.3%	0.4%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72	2.8%	0.4%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10	2.0%	0.2%
3	54	인조장섬유	339	1.7%	5.8%
4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58	1.3%	1.6%
5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172	0.9%	2.7%
대비산유국 수출			2,725	13.5%	0.4%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36	2.2%	0.3%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24	1.6%	0.2%
3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45	1.2%	1.5%
4	54	인조장섬유	136	0.7%	2.3%
5	73	철강의 제품	121	0.6%	0.6%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표 3-8. 중국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입금액	수입비중	중국 총수입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입			29,953	100.0%	4.5%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5,213	84.2%	39.3%
2	29	유기화학품	2,067	6.9%	7.4%
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677	5.6%	5.0%
4	26	광, 슬랙, 회	312	1.0%	1.2%
5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271	0.9%	12.5%
대GCC 수입			19,984	66.7%	3.0%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6,059	53.6%	25.1%
2	29	유기화학품	1,904	6.4%	6.8%
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617	5.4%	4.9%
4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179	0.6%	8.2%
5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12	0.4%	2.2%
대이란 수입			6,787	22.7%	1.0%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6,065	20.2%	9.5%
2	26	광, 슬랙, 회	272	0.9%	1.0%
3	29	유기화학품	163	0.5%	0.6%
4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91	0.3%	4.2%
5	72	철강	64	0.2%	0.2%
대비산유국 수입			2,767	9.2%	0.4%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674	8.9%	4.2%
2	31	비료	42	0.1%	1.4%
3	52	면	16	0.1%	0.2%
4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0	0.0%	0.2%
5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 · 무기화합물	8	0.0%	0.2%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대로 무역수지 흑자로 소폭 반전하였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경우와 달리 아직까지 중동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폭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동 수입금액 중 84.2%가 에너지 도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화학물과 플라스틱이 6.9%와 5.9%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와 석유화학제품이 전체 수입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GCC와의 교역 비중이 절대적인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이란과 비산유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과 GCC와의 교역비중은 66~70%이며, 이란과의 교역비중이 약 16~22%, 비산유국과의 비중이 9~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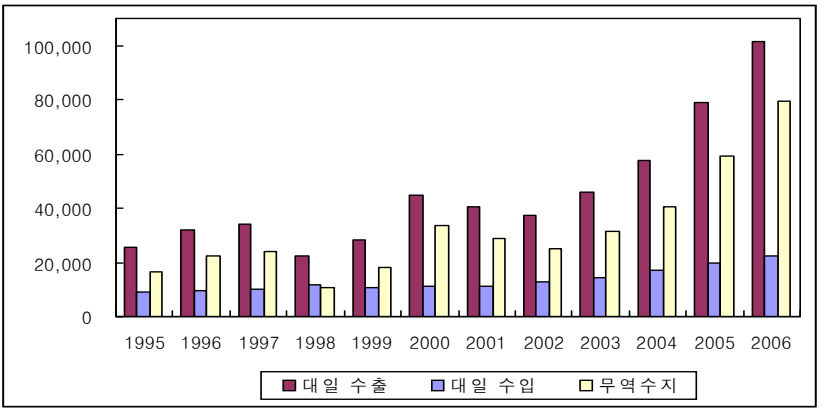
한편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 의류 등이 중국의 대중동 주요 수출품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보일러와 기기류가 전체 수출의 14.6%, 전기기기와 부품이 14.5%, 의류가 6.7%를 차지하였다.

3) 일본

일본은 중동의 제1의 수출대상국이자 제4의 수입대상국으로 중동 수출액의 15% 이상을 일본이 수입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의 특징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

▌그림 3-10. 중동의 대일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07).

▌표 3-9. 일본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비중	일본 총수출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출			15,274	100.0%	2.6%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7,733	50.6%	6.2%
2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324	15.2%	1.9%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407	9.2%	1.2%
4	73	철강의 제품	934	6.1%	9.9%
5	40	고무와 그 제품	737	4.8%	8.6%
대GCC 수출			13,006	85.2%	2.2%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7,000	45.8%	5.6%
2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794	11.7%	1.5%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86	7.8%	1.0%
4	73	철강의 제품	712	4.7%	7.6%
5	40	고무와 그 제품	648	4.2%	7.6%
대이란 수출			1,338	8.8%	0.2%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03	2.6%	0.3%
2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11	1.4%	0.2%
3	73	철강의 제품	203	1.3%	2.2%
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30	0.9%	0.1%
5	72	철강	125	0.8%	0.5%
대비산유국 수출			798	5.2%	0.1%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81	3.1%	0.4%
2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98	0.6%	0.1%
3	40	고무와 그 제품	51	0.3%	0.6%
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3	0.3%	0.0%
5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6	0.2%	0.1%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표 3-10. 일본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입금액	수입비중	일본 총수입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입			86,686	100.0%	16.8%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85,571	98.7%	64.3%
2	29	유기화학품	364	0.4%	3.2%
3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20	0.4%	4.5%
4	31	비료	102	0.1%	14.4%
5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상품	92	0.1%	1.2%
대GCC 수입			75,392	87.0%	14.6%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74,478	85.9%	55.9%
2	29	유기화학품	331	0.4%	2.9%
3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07	0.4%	4.3%
4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상품	89	0.1%	1.1%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5	0.1%	0.6%
대이란 수입			10,320	11.9%	2.0%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0,253	11.8%	7.7%
2	29	유기화학품	24	0.0%	0.2%
3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23	0.0%	4.6%
4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4	0.0%	0.1%
5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3	0.0%	0.1%
대비산유국 수입			536	0.6%	0.1%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02	0.5%	0.3%
2	31	비료	69	0.1%	9.7%
3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19	0.0%	1.2%
4	52	면	12	0.0%	1.4%
5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2	0.0%	0.2%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향으로 중동의 대일본 수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중동이 일본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부터 중동에 대한 에너지 도입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교역구조상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다. 반면 일본의 대중동 수출규모는 답보상태에 있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2년 375억 달러이던 일본의 대중동 수입액이 2006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127억 달러이던 대중동 수출액은 2006년 224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06년 일본의 대중동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약 78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이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에너지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일본의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매우 높다. 2005년 일본의 대중동 수입금액의 98.7%가 광물에너지며, 유기화학품과 알루미늄이 각각 0.4%씩 차지하였다. 일본의 경우 GCC 국가뿐만 아니라 이란으로부터도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전체 에너지 도입물량의 10% 이상을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대중동 수출품목은 자동차와 보일러 및 기계류, 전자제품 등이다. 특히 자동차가 전체 대중동 수출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 제품이 중동시장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EU

EU는 단일경제권으로 보았을 때 중동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라 할 수 있는데, 양 경제권간의 교역의 특징은 EU가 중동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중동의 대EU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로부터의 수입금액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쇄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EU가 중동 수입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점유해왔기 때문이며, 중동지역의 소득증대가 EU에서 생산된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을 더욱 촉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 3-11. EU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비중	EU 총수출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출			85,347	100.0%	2.4%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8,820	22.1%	3.4%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7,231	20.2%	4.8%
3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8	9.9%	2.0%
4	73	철강의 제품	2,849	3.3%	4.0%
5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부분품과 부속품	2,732	3.2%	2.2%
대GCC 수출			58,237	68.2%	1.6%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4,185	16.6%	3.9%
2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1,849	13.9%	2.2%
3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603	5.4%	1.1%
4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2,344	2.7%	3.6%
5	71	진주, 귀석 ·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2,132	2.5%	4.3%
대이란 수출			15,346	18.0%	0.4%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950	5.8%	0.9%
2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937	3.4%	0.7%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281	1.5%	0.4%
4	73	철강의 제품	880	1.0%	1.2%
5	99	기타 분류되지 않는 상품	790	0.9%	0.9%
대비산유국 수출			10,085	11.8%	0.3%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696	2.0%	0.3%
2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333	1.6%	0.7%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34	1.3%	0.3%
4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757	0.9%	0.2%
5	30	의료용품	542	0.6%	0.3%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표 3-12. EU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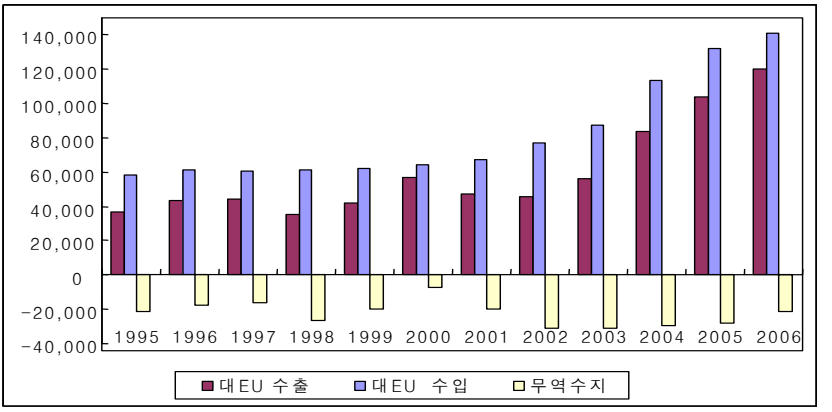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입금액	수입비중	EU 총수입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입			59,718	100.0%	1.7%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7,907	80.2%	11.0%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410	4.0%	0.7%
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680	2.8%	1.4%
4	71	진주, 귀석 ·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1,551	2.6%	3.0%
5	29	유기화학품	1,462	2.4%	1.3%
대GCC 수입			39,213	65.7%	1.1%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9,702	49.7%	6.8%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340	3.9%	0.7%
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649	2.8%	1.4%
4	71	진주, 귀석 ·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1,510	2.5%	2.9%
5	29	유기화학품	1,338	2.2%	1.2%
대이란 수입			12,350	20.7%	0.3%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0,986	18.4%	2.5%
2	72	철강	319	0.5%	0.3%
3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246	0.4%	0.9%
4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203	0.3%	4.4%
5	29	유기화학품	122	0.2%	0.1%
대비산유국 수입			4,033	6.8%	0.1%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3,102	5.2%	0.7%
2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01	0.2%	0.8%
3	61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85	0.1%	0.2%
4	52	면	83	0.1%	1.3%
5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54	0.1%	0.5%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그림 3-11. 중동의 대EU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07).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중동 수입시장 진출 확대로 인해 EU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

EU의 대중동 주력 수출제품은 보일러와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등이다. 한편 EU의 대중동 수입은 전체 금액의 약 80%를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GCC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50%, 이란으로부터 18%, 비산유국으로부터 5%로 나타난다.

5) 인도

인도는 중동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자, 제6대 수입대상국이다. 2006년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약 320억 달러로 여타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까지 중동을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오던 인도가 2002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로 반전한 데 이어 무역수지 흑자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가 중동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을 확대할 수 있었던 데는 인도가 GCC 지역에 광물에너지를 수출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기준으로 인도는 중동지역에 약 20억 달러치의 에너지를 수출하는데,

▌표 3-13. 인도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비중	인도 총수출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출			13,865	100.0%	13.4%
1	71	진주, 귀석 ·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2,657	19.2%	16.8%
2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956	14.1%	16.4%
3	73	철강의 제품	758	5.5%	26.8%
4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660	4.8%	15.7%
5	10	곡물	640	4.6%	39.0%
대GCC 수출			11,720	84.5%	11.3%
1	71	진주, 귀석 ·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2,647	19.1%	16.7%
2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456	10.5%	12.2%
3	74	동과 그 제품	612	4.4%	40.1%
4	10	곡물	599	4.3%	36.5%
5	73	철강의 제품	580	4.2%	20.5%
대이란 수출			1,190	8.6%	1.2%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376	2.7%	3.2%
2	72	철강	147	1.1%	3.8%
3	73	철강의 제품	123	0.9%	4.4%
4	29	유기화학품	85	0.6%	1.7%
5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72	0.5%	1.7%
대비산유국 수출			803	5.8%	0.8%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10	0.8%	0.9%
2	02	육, 식용설육	55	0.4%	8.9%
3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3	0.3%	1.0%
4	29	유기화학품	40	0.3%	0.8%
5	10	곡물	38	0.3%	2.3%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표 3-14. 인도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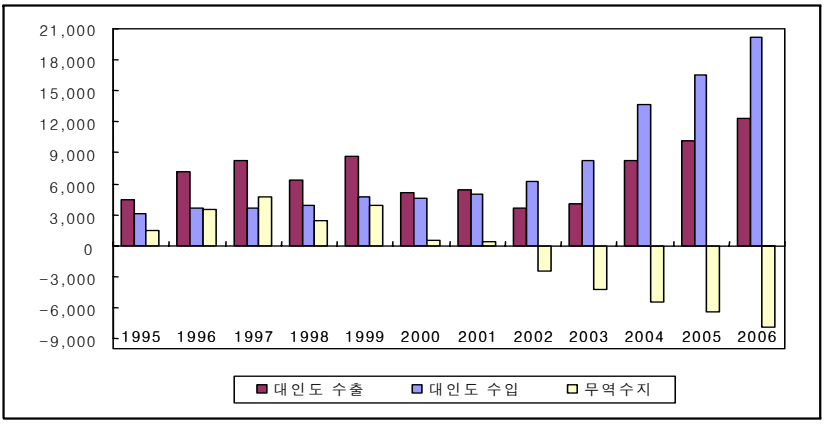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입금액	수입비중	인도 총수입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입			9,015	100.0%	6.0%
1	71	진주, 귀석 ·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 신변 장식용품, 주화	3,068	34.0%	14.8%
2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993	22.1%	3.9%
3	29	유기화학품	660	7.3%	12.8%
4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 무기화합물	455	5.0%	19.2%
5	31	비료	406	4.5%	24.1%
대GCC 수입			7,830	86.9%	5.2%
1	71	진주, 귀석 ·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3,068	34.0%	14.8%
2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986	22.0%	3.9%
3	29	유기화학품	513	5.7%	9.9%
4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 · 무기화합물	295	3.3%	12.5%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68	3.0%	10.4%
대이란 수입			706	7.8%	0.5%
1	72	철강	158	1.8%	2.9%
2	29	유기화학품	147	1.6%	2.8%
3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2	0.8%	8.6%
4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54	0.6%	6.8%
5	79	아연과 그 제품	52	0.6%	16.5%
대비산유국 수입			477	5.3%	0.3%
1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162	1.8%	21.2%
2	31	비료	147	1.6%	8.7%
3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 · 무기화합물	109	1.2%	4.6%
4	72	철강	17	0.2%	0.3%
5	78	연과 그 제품	12	0.1%	6.8%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그림 3-12. 중동의 대인도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07).

인도의 대중동 에너지 수입금액 역시 거의 20억 달러이다. 중동의 수출제품이 에너지자원과 귀금속, 일부 석유화학제품 외에는 특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 없는 반면 인도는 중동을 상대로 귀금속과 광물에너지 외에도 철강, 기계류, 곡물 등 비교적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도와 중동 간 귀금속 거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대외경제정책

가. GCC의 역내 경제통합

GCC는 1981년에 안보협력체로 결성되었다. 1979년 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등 인근지역의 정치불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안전보장 및 정치군사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하지만 그 후 GCC는 경제통합체의 성격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는데, 1983년에는 회원국 간 상품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단계로 발전하였다. 즉 1983년 3월부

터 역내 자유무역조치(역내관세 철폐, 여행제한 해제 등)를 실시하였다.

2005에는 경제통합의 정도가 한층 진전되어 관세동맹(custom union) 단계로 진입하였다. 2003년부터 단계적인 역외관세 단일화와 역내 무역원활화를 추진하여 2005년에는 공식적으로 관세동맹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5%의 단일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이 외에 제로관세의 '무관세품목', 5%이상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별품목', 수입이 금지된 '금지품목'이 있다. 하지만 이슬람의 종교적인 이유로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되거나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은 자본과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역내 자유이동을 허용하여 2007년까지 공동시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10년까지는 각국의 화폐를 GCC의 단일통화로 바꾸어 GCC를 EU의 유로존과 같이 하나의 통화동맹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에 단일통화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심화를 통해 GCC를 궁극적으로는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상품 이동의 경우 1983년 3월부터 회원국 간 교역에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관세동맹협정에 따라 술과 담배 및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5%의 대외 단일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동맹의 원칙에 따라 single entry principle(최초 도착지에서 통관철차 및 관세납부 완료)이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역내 통관절차가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되었지만, 2006년 이후에도 국경검색 절차는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 간 각종 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통관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역내 경제통합에도 불구하고 GCC 국가의 역내 교역비중은 5%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이는 국가간 산업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바레인과 오만의 역내교역비중이 3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FTA나 관세동맹 등 경제통합의 진전에도 역내 교역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이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적 혹은 제도적 경

제통합이 진전되어도 회원국 간 유사한 산업구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통합은 심화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15. GCC 국가별 역내 교역비중(2003년 기준) ▌

(단위: %)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GCC
역내수입비중	2.5	2.7	9.6	27.8	14.9	35.8	5.9
역내수출비중	4.8	5.1	1.5	10.6	4.8	5.9	4.9

역내 국가간 서비스 교역은 상품교역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이다. 바레인을 제외하면 GDP 중 서비스 비중이 40% 내외로 비교적 낮으며, 특히 정부서비스가 평균 16%로 높기 때문에 민간서비스업의 비중은 더욱 낮다. 그리고 서비스 영역이 독점 혹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서비스 교역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

GCC는 역내 시장통합을 위하여 2010년을 목표로 화폐단일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2007년 5월 쿠웨이트의 달러페그제 포기와 오만의 단일통화 후발 참여 결정 등이 이어지면서 2010년까지의 단일통화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치솟는 물가압력과 글로벌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GCC 각국이 현재의 통화 및 환율 정책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동 각국이 직면한 주요 경제현안 중 하나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다. 2008년 중동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7%로 전망된다. 2007년의 10.6%에 비해 개선된 편이지만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높다.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내수소비 확대, 대규모 정부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이 가파른 물가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중동 주요 산유국들은 자국의 환율을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달러페그(peg)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과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이들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전체 수입량의 상당부분을 유럽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는 페그제 채택 국가들의 통화 저평가로 이어져 수입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GCC 각국은 달러페그(peg)제로 인해 자국

내 물가통제를 위한 통화 및 금융정책을 강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달러페그 방식의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변경할 경우 단일통화 출범을 위한 각국 간 통화가치 평가 및 안정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쿠웨이트의 달러페그제 포기와 오만의 단일통화 후발참여 결정 등은 GCC의 단일통화 추진의 난항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낙관하기가 힘들다.

나. GCC의 역외 FTA 정책

GCC 국가들의 경우 상품수입시장은 매우 개방되어 있으나, 서비스업 및 외국인투자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제조품의 경우 2003년부터 GCC 차원에서 5%의 단일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05년말에 GCC 중 경제적 비중이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GCC 6개국이 모두 WTO에 가입하게 되었다.

GCC는 2001년부터 EU와의 FTA협상 재개하였으며, 그 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남미의 MERCOSUR 등과 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GCC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대부분 수출시장 확대와 더불어

▌표 3-16. GCC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2006년 말 현재) ▌

협상단위 형태	현 황		
	체결	협상	추진
블록 대 블록		GCC-EU GCC-MERCOSUR	
블록 대 개별		GCC-중국 GCC-인도 GCC-일본 GCC-싱가포르	GCC-터키 GCC-한국
개별 대 개별	바레인-미국(2004) 오만-미국(2005)	UAE-미국 UAE-호주 쿠웨이트-미국	카타르-미국

에너지 분야에서의 관계강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GCC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로 요구하고, GCC는 FTA 협상 상대국에게 에너지 도소매업, 석유화학시장 진출을 희망하며 기술이전과 투자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6년 말 현재 GCC는 EU, 중국, MERCOSUR, 인도, 일본,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 몇 나라와는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UAE와 같이 회원국 중 일부는 GCC 전체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FTA 협상을 체결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EU와 GCC 간 FTA 협상은 양 지역간 관계 강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양 지역간 FTA 협상 대상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원칙수립, 그리고 원산지 표기와 같은 경제적인 분야 외에 인권, 불법이민, 테러 등의 정치적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GCC 전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바레인과는 2004년, 오만과는 2005년 10월에 FTA를 체결하였다. 미・오만의 FTA 협상 결과 산업 및 소비재는 관세가 철폐되고 그 외 상품도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서비스 부문에서 오만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였다.

UAE는 GCC 전체 차원에서의 FTA 협상 진전 속도가 느린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 미국 및 호주와 개별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GCC 회원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UAE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기업관련 법안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UAE의 노동권 확립을 위한 노동법 제정 및 시행과 동 법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은 UAE와의 FTA 체결을 통해 UAE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진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기대하고 있다.

GCC 전체 차원에서 현재 다양한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FTA가 체결된 경우가 없어 GCC 사무국의 실무협상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의 지연은 회원국 간 의견 일치를 유도하기도 쉽지 않고, GCC 사무

국의 행정능력도 충분치 않으며 대외통상협정 경험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GCC가 협상대상국의 서비스시장 추가개방과, 대태러정책과 같은 비경제적 이슈 포함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협상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3국 순방시 GCC와의 FTA체결을 공식 제안하였다. 하지만 GCC 사무국이 기존의 많은 FTA 협상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행정적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이후 2007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와 GCC 사무국은 본격적인 FTA 협상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가졌다. 그 결과 2008년 4~5월 중에 1차 협상을 개시하기로 협의하였다.

제4장

주요국의 대(對)중동정책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시사점

04

주요국의 대(對)중동정책 현황 및 시사점[13)]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 · 경제 관계

2001년 9・11 사태 이후 걸프지역은 미국에게 전략적 혹은 안보적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알카에다처럼 이 지역에서 형성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통해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동의 문제는 곧 미국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9・11 사태와 G. W. 부시의 집권은 미국의 중동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중동지역 내에서의 갈등의 안정적 관리나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을 넘어서, 극단적 이슬람주의와 반미주의를 유발하는 중동 정치체제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의 정치적・경제적 재건과 이란의 핵개발 시도 역시 미국의 중동정책의 핵심적 사항이 되었다.

미국의 대중동 관계에서 전략적 혹은 안보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중동이 지니는 의의이다. 2005년의 경우 미국은 걸프지역으로부터 230만b/d의 원유를 수입하여 걸프지

13) 본 장은 박복영 외(2006)의 4장을 요약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역에 대한 원유수입의존도가 17%를 기록했는데, 이 비중은 1990년 25%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미국의 제3위의 원유수입대상국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동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005년에 걸프지역 8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출액은 207억 달러, 수입액은 437억 달러로 이 지역에 대해 230억 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 미국 전체 수출에서 걸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입은 2.6%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 이라크 복구사업과 오일붐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10여 년간 100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수입의 경우는 원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고 있으며 최근 유가급등 때문에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UAE에 걸프지역 전체 수출의 약 40%를 하고 있으며, 수입의 절반 이상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란과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경제제재 때문에 공식적인 경제관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미국의 중동정책은 9・11 사태와 부시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는데, 전략의 핵심은 테러의 근절을 위해 중동의 정치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완화하여 테러를 유발하는 사회적 토양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대중동 전략이다. 중동과의 경제협력정책 역시 이러한 전략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동에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중동정책의 목표이며, 그 목표가 달성될 때만 테러가 근절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라크 전쟁은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이고 따라서 전쟁의 목표는 단순히 대량살상무기의 제거가 아니라 '체제변화'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라크의 체제변화는 중동 전체의 체제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미국은 석유의 해외 의존도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중동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을 에너지 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 중동에 대한 미국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석유개발 부문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중동국가에 대해 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2006년 초에 2025년까지 중동으로부터의 석유도입을 현재의 75%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2001년에 발표된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걸프국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석유시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그 징후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미국 석유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중동에서의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동파트너십 이니셔티브(MEPI: Middle East Partnership Initiative), 중동자유무역 이니셔티브(MEFTI: Middle East Free Trade Initiative), 확대중동 이니셔티브(BMENA: Broad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itiative)가 그것이다. MEPI는 중동의 정치, 경제, 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정책은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재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조나 교육 등 외교정책의 연성수단(softer elements)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EPI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여성인력 양성의 4개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동지역 정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NGO, 학생, 중소기업인, 전문여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BMENA는 2004년 G8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하여 채택된 다자간 사업인데, 미래포럼(Forum for the Future)과 미래기금(Foundation for the Future)이 이 정책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미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MEFTI이다. 부시행정부는 중동경제를 개방하여 세계경제체제에 통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동지역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MEFTI를 제시하였다. 폐쇄적이고 정부주도적인 중동의 경제구조를 개방적이고 보다 민간주도적인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아랍적인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불만을 완화하여 테러와 반미 감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궁극적으로 역내국가 간 상호인정을 통해 중동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Middle East Free Trade Area)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미국은 정치체제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 NGO, 청년, 중소기업인, 여성 등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개방을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 지역간 정치적·문화적 불신이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동의 왕정 국가들은 미국의 중동정책이 현재의 정치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동 일부 왕족이 테러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표 4-1.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간 무역자유화 추진 현황 ▌

(2006년 1월 현재)

국가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투자협정 (TIFA)	투자보장협정 (BIT)	WTO 가입	일반특혜관세 (GSP)
GCC 회원국	바레인	체결(2004년)	발효	발효	가입	비대상국
	쿠웨이트		발효		가입	비대상국
	오만	체결(2005년)	발효		가입	부여
	카타르		발효		가입	비대상국
	사우디아라비아		발효		가입	비대상국
	UAE	협상 중	발효		가입	비대상국
기타	이란				협상 중	비대상국
	이라크		발효		협상 중	부여

자료: 미국무역대표부(www.ustr.gov).

2. EU

가. 대중동 정치 · 경제 관계

유럽과 중동은 정치・사회・경제 각 부문에 걸쳐 중요한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분쟁과 이라크 전쟁, 폭력조직 및 중동 출신 극단주의자들의 유럽 내 테러 자행 등은 EU의 심각한 안보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EU 내 중동출신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EU와 중동 간 연계가 강화되는 한편 중동지역으로부터 불법이민이 증가하고 있어 국경불안과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과 세계 석유수요 증가로 인한 고유가 및 수급난 장기화는 세계 석유 소비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EU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EU의 석유수입 비중은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미국의 비중(27.1%)에 필적하는 2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전체 석유 수입량의 절반 이상인 44%와 15%를 러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의존하는 반면, 걸프지역 의존도는 24%로 걸프지역에의 석유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는 전체 석유 수입량의 80% 내외가 걸프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EU의 대GCC 교역은 EU 전체 교역의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EU의 대GCC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는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

▌표 4-2. EU의 대GCC 국별 수출입 현황 ▌

(단위: 백만 유로, %)

수출	2005년	비중	수입	2005년	비중
전 세계	1,061,836	100.0	전 세계	1,176,055	100.0
GCC	50,395	4.7	GCC	37,322	3.2
UAE	25,288	2.4	사우디 아라비아	22,092	1.9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b).

가로 수입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GCC 내 EU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전체 교역의 1.7%)와 UAE (1.6%)이며 이들 두 국가가 전체 대GCC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수입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폭의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GCC에 오일머니가 유입되어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EU로부터의 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GCC교역에서 큰 폭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EU의 대GCC 무역구조는 주로 1차산품인 에너지광물을 수입하고 기계류와 수송장비 등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EU에 있어 걸프지역을 비롯한 중동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경제・에너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EU의 대(對)중동 전략은 정치・경제 협력관계 강화와 더불어 중동사회의 안정과 진보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EU에 위협이 되는 중동 내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중동 정치・사회의 안정과 번영이기 때문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EU의 안보전략은 상당한 변화를 가지게 된다. 인도적 구조, 평화유지 및 위기관리업무 등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방식에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위협에도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EU의 주요 안보 위협지역인 중동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EU의 전략목표를 새로운 위협에의 적극대처로 설정하고 EU 인근국들과의 안보협력체계 및 효과적 다자주의(effective multilateralism)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EU 원유수입의 약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프지역과 북부아프리카와의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관계 및 경제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동반자적 관점에서 중동지역 안정과 번영을 통한 EU의 사회안정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중동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이민문제 해결, 법치주의 확립, 인권보장, 시민

사회 성숙, 정부지배구조 개선 등 중동 경제발전 및 사회개혁을 장기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동지역 정치, 사회, 문화, 인권 등 제반분야에 대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EU는 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동 개발원조액 지급액은 2005년의 경우 약 11억 유로로 전체 개발원조액 약 61억 유로의 18%를 차지하고 있다.[14] EU는 개발원조를 활용해 중동의 사회안정 및 개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처 및 완제품 판매시장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 근절, 분쟁 예방과 해결 등을 위하여 정부간 공조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 각 국가와 제휴협정 및 각료회담 등을 통해 테러리즘에 공동 대응키로 하여 테러지원을 규제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를 실시하고 관련 설비 및 기술의 수출 및 국경간 이동을 막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U는 중동국가들이 직면한 여러 경제문제 및 사회불안의 근본 원인을 빠른 인구증가에 따른 청년층 교육수요 증가 및 일자리 부족으로 파악하고, 중동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중동지역 경제발전과 EU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중해연안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부문 내부개혁 지원과 함께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무역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EU는 2010년까지 지중해연안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하여 다자간 장관급 경제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GCC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1988년 체결된 EU・GCC 협력협정을 토대로 에너지 부문과 경제부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인 전문가 교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GCC 단일통화 도입 및 공동시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걸프국가 정부행정 합리화 및 개편을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중동 전 지역에 걸쳐서는 규제환경 현대화 및 무역자유화를 통한 중동국가들의 WTO 가입 촉진, EU-지중해연안국가 FTA

14) European Commission(2006a).

및 EU · GCC FTA를 잇는 지역통합 FTA 설립 촉진, 초유럽 네트워크를 잇는 에너지, 운송, 통신망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EU는 GCC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으로, 최근 협상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90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2003년 GCC 관세동맹이 결성되면서 협상이 재개되었고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끝으로 GCC 국가들이 모두 WTO에 가입하면서 협상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EU가 GCC와 FTA를 체결하려는 배경에는 경제적 목적과 정치 · 안보적 목적이 함께 잡고 있다. 세계 최대 서비스 수출경제인 EU는 GCC의 서비스시장 진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인 GCC로부터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아랍권 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EU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리고 EU와의 FTA 체결이 GCC의 내부 정치 · 경제개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반면 GCC가 EU와의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산업다각화 및 성장동력 발굴 측면에서 석유화학 및 에너지 연관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을 확보하고 유럽기업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려는 경제적 측면이 크다. 현재 EU와 GCC 간 FTA 협상 이슈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까지 산재해 있다. GCC는 EU측에 알루미늄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EU는 GCC의 알루미늄 및 석유화학제품에 6%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동유럽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석유 · 가스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다각화를 이루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제조업을 중점 육성 중인 GCC 국가들로서는 알루미늄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EU의 수입관세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EU는 전세계 알루미늄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전체 알루미늄 소비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GCC는 제조업 육성이라는 맥락에서 상품수출 확대를 위한 원산지규정 완화를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EU는 GCC측에 서비스

시장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EU 기업들의 에너지산업 투자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주요 서비스 수출경제인 반면 GCC는 서비스 수입경제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 보호, 기술표준 채택 등 서비스 시장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GCC 현지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정부조달 제도의 정비를 통해 EU기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지 정부에 의해 통제·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상류부문에 대한 EU 기업 투자 허용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최근 EU는 인권보호, 정치개혁, 대테러리즘 협력 등의 비경제 이슈도 FTA 협상 의제로 제기하여 협상이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2006년 하반기에 EU가 여타 안건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6% 수입관세 철폐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 연내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끝내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7년 8월 기준으로 EU·GCC 간 FTA 협상 의제의 약 95%가 합의된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양자간 FTA 협상이 연내에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 4-3. EU-GCC FTA 주요 이슈▐

GCC측 요구 사항	EU측 요구 사항
· 알루미늄 및 석유화학제품 관세철폐 · 원산지 규정 완화	· 서비스시장 개방 · 정부조달시장 개방 · 석유·가스 부문 투자 허용 · 인권보호·정치개혁·대테러협력

자료: 필자 정리.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일본의 중동에 대한 관심은 1973년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크게 고조된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곤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수급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석유메이저로부터 원유를 간접 구매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결과 중동 산유국들과의 외교관계 강화가 자연스럽게 일본의 주요 외교 사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주요 에너지수입국인 일본은 중동정세의 안정화와 산유국과의 관계강화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적극적인 대중동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대중동 원유수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대중동 무역수지 역시 악화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05년 일본의 원유 수입금액은 약 8조 8,000억 엔으로 전체 수입에서 원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4%에 이르며, 이 중 약 90%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였다.[15] 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수입이 전체의 32%, UAE가 27%, 이란이 15%로 상위 3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3/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동 무역수지 또한 악화되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해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대중동 수출 증가는 수입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2005년 대중동 무역적자 금액은 약 7조 8,000억 엔으로 이는 일본의 2005년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액 약 8조 7,000억 엔에 필적하는 금액이다. 일본의 대중동 무역구조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소비재 중심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보완적 구조를 띠고 있다.

15) 일본의 원유수입금액 증가는 상당부분 원유수입단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3과 2005년간 일본의 원유수입물량은 큰 변동이 없으나 수입단가는 2003년 말 배럴당 30달러에서 2005년 말 배럴당 60달러 가까이 상승하였다.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일본의 대중동 경제전략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잠재시장 개척으로 집약될 수 있다. 2006년 4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세계경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을 에너지수급난 시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자 막대한 오일달러를 보유한 자금공급원 및 잠재시장으로 파악하고 중동과 보다 긴밀한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중동은 일본 원유수입량의 약 90%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원유공급지이며 또한 동 지역에 세계 원유매장량이 편재되어 있어 향후에도 중동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일본 정부는 안정적 원유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의 정세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중동지역 평화 안착과 재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동지역을 개발 잠재력이 큰 성장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오일머니 축적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에 힘입어 석유・가스, 석유화학, 수・전력, 부동산 개발 등 건설・플랜트 부문과 소비재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1970~80년대의 오일붐 때와는 달리 최근 중동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장래를 위하여 교육・훈련, 의료,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오일머니를 지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일본이 중동시장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렇듯 원유공급지와 성장시장으로서의 중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원유 등 에너지를 수입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플랜트 등을 수출하는 기존의 단선적 경제관계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중동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동지역 정세안정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 수단으로 일본 정부는 정부개발원조를 활용하고 있다. 2004년 일본의 대중동 ODA 지원금액은 약 10억 달러로, 이는 일본 전체 ODA 지출금액의 1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된 자금은 현지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구호와 교통, 발전 및 상하

수도 설비, 의료, 교육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의 재건사업 뿐만 아니라 치안확보와 정치민주화 부문에도 지원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주요 ODA 지원대상 국가로 2004년 대중동 지원금액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창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인도적 구호활동과 향후 국가 창설 및 운영을 개혁 지원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본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제공한 경제적 지원규모는 약 8억 4,000만 달러에 달한다.[16)]

일본과 중동국가 양자간 정치・외교관계 강화는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과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일본정부는 최근 정상 회담과 장관급 회담 등 여러 차례의 정부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통해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팔레스타인, 카타르, 튀니지, 예멘, 모로코,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여 정치・경제 부문의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상회담 외에도 일본・아랍 대화포럼(제4차, 2006년 5월)과 중동지역 이해를 위한 세미나(제8차, 2006년 2월) 등을 개최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민・관・학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공급과 오일머니 축적으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걸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외교적 유대를 긴밀히 유지함과 동시에 GCC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16) 8억 4,000만 달러 중 약 73.1%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었으며, 23.6%는 직접원조 형태로, 3.3%는 기술협력 형태로 제공되었다.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 · 경제 관계

과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국의 대중동 정책은 경제개방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19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과 같은 에너지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게 된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의 원유 수요는 90% 증가된 반면 중국 내 원유생산 증가는 15%에 그쳐 원유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경제 성장으로 중국의 원유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에너지 확보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걸프지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거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진출을 추진하였다. 1997년에 중국은 이라크와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유전개발 사업에 합의하였고, 1999년에는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부문 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확대하였고 2000년부터는 이란 유전개발에 참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4년 중국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란의 야다바란(Yadavara) 유전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은 전체 원유수입 중 약 10%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이란의 유전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중동 정책에서 이란은 중점 국가로 분류된다.[17]

중국과 GCC 6개국, 이란, 이라크 등 걸프지역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걸프지역 수출은 175억 달러, 수입은 272억 달러 수준이다. 중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동 8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은 2005년 기준 각 2.3%와 4.1%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중국과 동 8개국

17) Shin and Tkacik, Jr.(2006).

간 교역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중동 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로 매우 높고 수출에서는 대체로 제조업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중국의 대중동 정책은 정치보다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미국과 달리 경제적 협력관계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18] 이로 인해 중동의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편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의 대중동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중동 접근전략은 중동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석유 기업이 마그레브(Maghreb)[19] 지역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지역까지 석유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동지역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것이 「중국・아랍 협력포럼(China-Arab Cooperation Forum)」과 「중국・GCC 간 경제, 무역, 투자, 기술협력 기본협정(China-GCC Framework Agreement on economic, trade,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이다. 중국 외교부는 에너지와 상품분야에서의 걸프지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아랍 협력포럼'을 구성하였고 「중국・GCC 간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들은 현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서 석유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GCC 간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은 중국과 GCC 간 FTA 체결을 위한 사전 협력체제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이 GCC와 FTA를 추진한 배경에는 중국과 GCC 간 교역 규모 급증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GCC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 등이 있다.

---

18) Rubin(1999).
19) 리비아 · 튀니지 · 알제리 · 모로코 등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의 총칭.

중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새 정권이 수립되자 이라크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중국이 이라크 신정부와의 관계 형성에 신속히 움직인 것은 중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와 체결한 유전개발 사업관련 계약을 되살리고, 나아가 이라크 유전의 40%가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라크 북부지역 유전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란을 중동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결성된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이란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20] 그러나 2005년 보수파인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에 당선 된 후로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동 기구에 이란이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UN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제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대이란 정책은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이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해 오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6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의 중국방문에 후진타오 주석이 답방하였다. 2006년 상반기에 2차례의 양국 정상간 만남으로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한 상당한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시사점

앞서 살펴본 네 나라는 걸프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각자 고유한 전략적 목표

20) 1996년 결성된 '상하이 5개국(Shanghai Five)'인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되어 6개국으로 결성된 지역안보 모임이다.

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걸프지역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걸프지역에 대한 에너지의존도가 높다. 걸프지역에 대한 석유수입의존도는 미국이 17%, EU가 24%, 중국이 4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70~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수입량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둘째로 많다. 반면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은 이 네 나라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많다. 이는 결국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걸프지역이 갖는 중요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경쟁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우리 에너지수입액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은, 에너지수입국으로서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과 앞으로 이 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 나라와는 달리 패권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과의 협력정책에서 반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R&D 분야와 첨단기술에서는 미국이나 EU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걸프지역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의 전략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네 나라의 대걸프지역 협력정책이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협력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정책을 강화하고, EU가 오랫동안 미루어두었던 GCC와의 FTA 협상을 재개하고, 중국과 걸프지역의 정치지도자가 거의 매년 상호방문을 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증거다. 이것은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시되고 그와 더불어 걸프지역의 시장이 확대된 결과지만,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이슬람 문제가 국내 안보나 사회안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네 나라 모두 이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고려할 때 FTA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FTA가 정치・외교적 관계 강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그 결과 간접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걸프지역 국가 역시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시장에 대한 통합을 촉진하는 데도 FTA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도 FTA의 흐름에서 소외되었을 때 입게 될 상대적 불이익을 피하고, 이 지역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GCC와의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네 나라 모두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분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는 유전개발을 위한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라비아반도 국가의 경우 외국기업의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이미 석유메이저 중심으로 석유산업 구도가 확고해져 있는 반면, 이 두 나라는 새로운 참여 기회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각국은 에너지 분야 참여를 위해 정치・외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구매나 다른 에너지 및 인프라분야 투자를 대가로 유전개발권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지역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LNG 구입이나 에너지 분야 투자 등과 같이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매우 다양한 협력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정부 재원을 이용하여 걸프지역에서 대안적 세력이 될 수 있는 NGO나 중소기업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EU는 원조나 전문인력 교류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상외교나 에너지소비대국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즉 자국기업의 일방적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걸프지역과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수단을 발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기업의 진출을 위해 우리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걸프지역의 필요를 감안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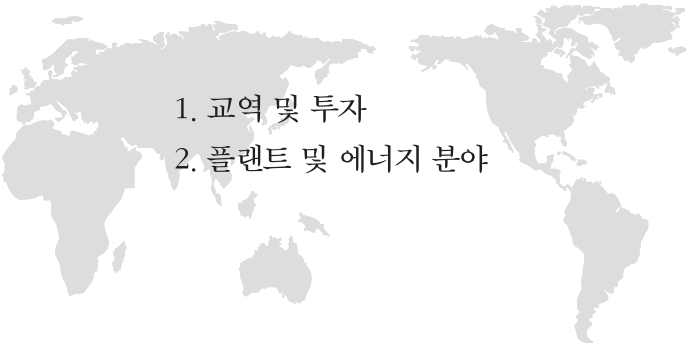
▌표 4-4. 주요국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비교 ▐

국가	전략적 목표	주요 협력정책	특징
미국	테러방지와 체제전환 WMD 확산 방지	중동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중동 자유무역 이니셔티브	개혁 · 개방을 위한 포괄적 접근 힘을 이용한 경성정책
EU	대중동 영향력 유지 에너지 안보	EU · GCC 협력협정 EU · GCC FTA 추진	긴밀한 정치 · 경제 관계 전통 원조와 외교를 이용한 연성정책
일본	에너지 안보 강화 시장진출 확대	일본 · 아랍 대화포럼 일 · GCC FTA 추진	에너지 안보와 경제실리의 외교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다양화
중국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동 영향력 확대	중국 · GCC 협력협정 중 · GCC FTA 추진	미국의 틈새 활용(이란 등) 에너지 소비대국 지위 활용 적극적 정상외교

자료: 박복영 외(2006)에서 인용.

제5장

한 · 중동 경제관계 현황



1. 교역 및 투자
2.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05
한 · 중동 경제관계 현황

1. 교역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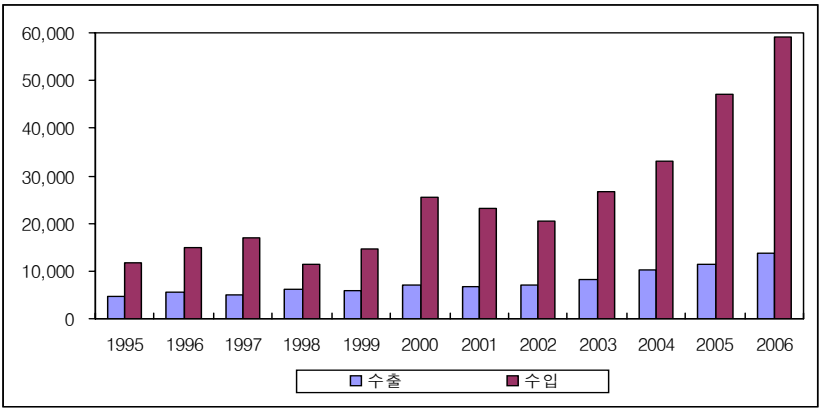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중동의 경제관계도 중동경제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동의 경제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고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대상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중동의 경제구조는 에너지생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생산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형 플랜트 사업을 많이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동의 경제협력 역시 에너지 수입과 플랜트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과 플랜트 수출 분야에서 중동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이나 투자 측면에서 중동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중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13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수입은 591억 달러로 전체의 18.7%나 차지하였다. 물론 수입의 95% 이상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 교역액은 국제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림 5-1]과 같이 우리의 대중동 수입액은 고유가가 재현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의 수입액은 1990년대 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중동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플랜트 발주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동 수출도 증가하는데, 1990년대 동안 정체되었던 수출

액이 최근에는 연간 15% 내외씩 증가하여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금액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동지역과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무려 39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우리의 무역대상 지역 중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5-1. 한국의 대중동 교역 추이(1995~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2007).

중동 내 지역별 수출을 보면 GCC 지역으로의 수출이 우리나라 대중동 총수출의 65.5%를 차지하고 있고, 이란이 22.6%, 비산유국들이 11.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제품의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세 나라의 비중이 80%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입은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에 집중되어 있고 세 나라의 비중은 70% 수준이다. 이란의 경우 우리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 대해서는 수입에 비해 수출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자동차, 원자로와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이며, 반면 수입의 95% 이상은 석유와 LNG가 차지하

▌표 5-1. 한국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출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비중	한국 총수출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출			9,480	100.0%	3.3%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070	21.8%	5.5%
2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714	18.1%	4.4%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570	16.6%	2.0%
4	72	철강	749	7.9%	5.8%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12	5.4%	3.6%
대GCC 수출			6,212	65.5%	2.2%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251	13.2%	3.3%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89	12.5%	1.5%
3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139	12.0%	3.0%
4	72	철강	372	3.9%	2.9%
5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294	3.1%	1.7%
대이란 수출			2,139	22.6%	0.8%
1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51	4.8%	1.2%
2	72	철강	368	3.9%	2.9%
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92	3.1%	2.0%
4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58	2.7%	0.7%
5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18	2.3%	0.3%
대비산유국 수출			1,063	11.2%	0.4%
1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18	5.5%	1.4%
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57	1.7%	0.2%
3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12	1.2%	0.3%
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3	0.8%	0.5%
5	54	인조장섬유	40	0.4%	1.3%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표 5-2. 한국의 대중동 지역별 · 품목별 수입 현황(2005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코드번호	품목명	수입금액	수입비중	한국 총수입 내 비중
대중동 전체 수입			46,300	100.0%	17.7%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5,029	97.3%	66.7%
2	29	유기화학품	709	1.5%	8.4%
3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224	0.5%	6.0%
4	31	비료	54	0.1%	12.8%
5	72	철강	48	0.1%	0.3%
대GCC 수입			41,706	90.1%	16.0%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0,603	87.7%	60.1%
2	29	유기화학품	637	1.4%	7.5%
3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207	0.4%	5.6%
4	31	비료	43	0.1%	10.2%
5	72	철강	36	0.1%	0.2%
대이란 수입			3,531	7.6%	1.4%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3,416	7.4%	5.1%
2	29	유기화학품	59	0.1%	0.7%
3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5	0.0%	3.1%
4	72	철강	11	0.0%	0.1%
5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 · 무기화합물	8	0.0%	0.3%
대비산유국 수입			388	0.8%	0.1%
1	27	광물성연료 · 광물유 ·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335	0.7%	0.5%
2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7	0.0%	0.5%
3	29	유기화학품	13	0.0%	0.2%
4	31	비료	11	0.0%	2.6%
5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 · 무기화합물	3	0.0%	0.1%

주: GCC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이며, 비산유국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4개국임.

자료: UNCTAD(2007).

며 일부 석유화학제품이 전체 수입의 약 2%를 차지한다. [표 5-1]과 [표 5-2]는 2005년 중동시장 지역별로 우리의 5대 수출입 품목과 그 수출입액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와 중동지역 간의 투자관계는 교역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작은데, 2007년 6월 말 현재 우리의 중동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누적액은 11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의 1.5% 수준이다. 주요 투자분야는 역시 광업과 건설업분야이며, 국가별로는 예멘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많은 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국내산업이 비교적 발전해 있는 이란에 우리의 자동차 회사들이 녹다운 형태의 조립공장에 부분적으로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걸프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직접투자액도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1990년대 말 한국의 정유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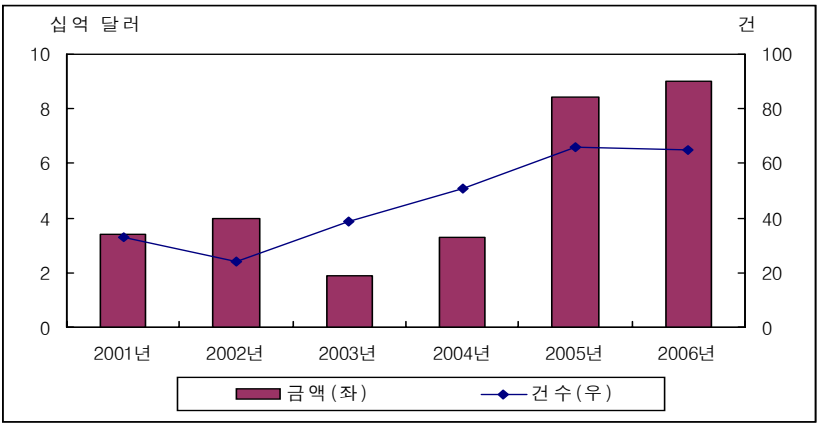
2.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상품교역 이외에 해외건설 및 플랜트 시장에 있어 걸프지역은 우리기업의 중요한 해외건설 수주대상 지역이었으며 플랜트 수출대상 지역이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의 대부분은 걸프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국제유가의 급락과 더불어 중동의 발주규모가 감소하면서 이 분야에서 걸프지역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지만 꾸준히 30% 내외의 수준은 유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은 토목이나 건축 분야보다는 플랜트 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동에서 플랜트 수주규모는 [그림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까지만 해도 20~4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유가가 급등하고 이라크 전쟁의 여파가 사라지면서 발주규모가 급증한 2005년에는 그 규모가 총 66건에 84

21) 이 투자마저도 네덜란드를 거쳐 이루어져 공식통계에서는 걸프지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6년에도 65건 9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해외플랜트 수주규모의 35%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6년 플랜트 수출을 발주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27%, UAE가 24%, 오만이 21%로 이들 세 나라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그 뒤를 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석유화학이 48억 달러(전체의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해양 18%, 발전 17%, 석유가스 7%, 시멘트제철 4% 등이다. 이러한 플랜트 수출 패턴은 걸프국가들이 오일달러를 이용하여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석유화학 분야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2. 우리나라의 대중동 플랜트수출 추이▐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을 중동 걸프지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전체 석유수입의 77%를 GCC 6개국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원유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두 나라에서 60% 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쿠웨이트와 이란에서 도입하고 있다. 전체 원유수입 중 걸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에는 60% 수준이었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

▌표 5-3. 우리나라의 대중동 플랜트 수출의 국가별 및 부문별 구성(2006년) ▌ (단위: 백만 달러)

국가별			부문별		
국가	금액	비중	부문	금액	비중
사우디아라비아	2,398	27%	석유화학	4,797	53%
UAE	2,130	24%	해양	1,595	18%
오만	1,883	21%	발전	1,504	17%
카타르	1,354	15%	석유가스	611	7%
쿠웨이트	770	9%	시멘트.제철	321	4%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세에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원유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수송비 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점점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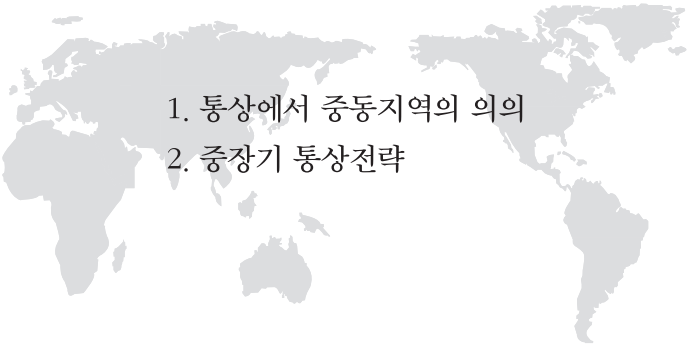
LNG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걸프지역 중에서는 대부분 카타르와 오만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UAE로부터 일부를 도입하고 있다. 두 나라로부터는 거의 전량을 장기도입계약에 따라 도입하고 있으며, 도입가격은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있다. 걸프지역에 대한 LNG수입 의존도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3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 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며, 걸프지역의 LNG 플랜트 준공으로 이 지역으로부터 공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5-4.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수입 현황(2006년) ▌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란	이라크	합계
원유 (백만 배럴)	261	158	92	36	49	0	75	15	686
가스 (천Mt)	0	999	0	5,220	6,733	0	0	0	12,952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6장
중동과의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에서 중동지역의 의의
2. 중장기 통상전략

06 중동과의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에서 중동지역의 의의

가. 절대적 에너지 공급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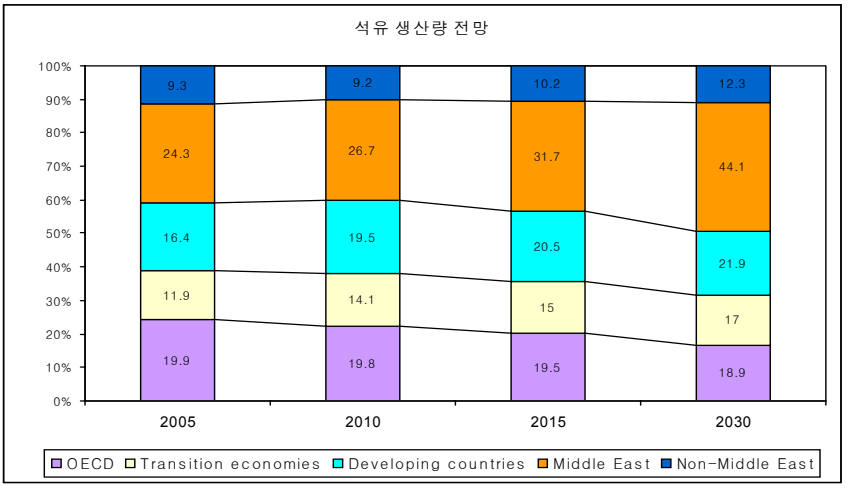
중동이 우리와의 통상관계에서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절대적 에너지 공급지역이라는 위상이다. 통상 1차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이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우리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르고 특히 석유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석유의 약 80%를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그보다 의존도가 낮지만 약 50%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은 우리의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지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에너지자원의 분포 때문이다. 석유의 경우 세계 전체 확인매장량의 60%, 미확인매장량의 40%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전체 매장량의 40%가 중동에 존재한다. 특히 석유의 경우 중동의 생산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에 증산의 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 결과 앞으로 세계 석유생산에서

중동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6-1]과 같이 IEA에 따르면 2005년 중동의 생산비중은 29%이지만 2030년에는 39%로 높아져 무려 10%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역비중으로 따져보면 집중도는 증가하는데, 현재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석유를 중동이 수출하지만, 2030년에는 4,600만 배럴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앞으로 세계 석유소비 증가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동 석유에 대한 아시아의 의존도는 현재 약 40%에서 2030년에는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1. 지역별 원유생산 전망 (2000~2030년) ▌

(단위: 백만b/d)



자료: IEA(2006).

천연가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데 중동이 현재 세계 전체 천연가스의 약 10%를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중동의 연평균 생산증가량은 4.3%로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러 생산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는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G만의 비중으로 계산하면 중동 집중도는 훨씬 높아진다. 그리고 향후 LNG의 대표적

인 증산 국가는 카타르나 이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중동에 대한 에너지의존도가 높지만 앞으로도 석유나 LNG 두 부문 모두에서 대중동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중동의 위상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생산능력에 대한 불안감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라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중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사실 에너지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물량확보의 위험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에너지 교역대상국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나 천재지변, 정치적 상황 등에 의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 공급국이 물량을 배분 혹은 할당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이며, 수입국으로서는 그것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충격에 빠지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이나 1991년 제1차 걸프전 때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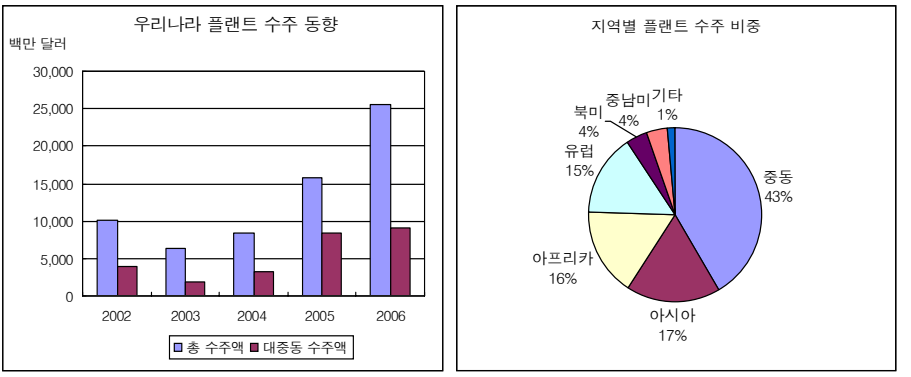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세계 석유생산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는 심각한 석유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석유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유국의 생산능력 증가 속도가 수요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22] 즉 중국을 비롯한 다수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석유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OPEC이나 비OPEC 산유국 모두 예상만큼 석유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전세계가 에너지 소비 억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동 산유국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22) 이것이 경제적으로 채굴가능한 매장량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석유개발투자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나. 최대 플랜트 수출시장

전통적으로 중동이 우리 경제에서 갖는 의의 중 하나는 해외건설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었다. 1970년대 오일붐 당시 우리 건설회사들은 중동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오일머니를 획득해 옴으로써 석유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토목・건축과 같은 건설 부문보다는 플랜트부문이 갖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즉 건설 부문에서는 임금과 같은 가격경쟁력에서 현지기업이나 중국기업에 크게 뒤지기 때문에 진출이 어렵다. 대신 석유화학, 담수, 발전, 해양, 석유 및 가스 개발 등과 같은 플랜트 부문이 우리의 주요 진출 분야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20여 년간 중동지역의 경기침체로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진출도 매우 부진하였다. 하지만 2003년 이후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중동에서 다시 투자가 크게 활기를 띠었고, 그 결과 우리의 대 중동 플랜트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3년간 중동에서의 플랜트 수주액은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의 43%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2007년에도 3분기까지 전체 플랜트 수주액 283억 달러의 37%를 차지하여 최대 시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림 6-2.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 추이 및 중동의 비중▐



주: 지역별 비중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수주액 기준임.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 시장으로서 중동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의 플랜트 수요는 중동의 경기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중동의 경기는 국제유가가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석유의 타이트한 수급구조는 고유가의 지속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막대한 오일머니가 중동 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됨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여 년 동안 중동은 심각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5% 내외의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동 산유국들의 최대 정책목표는 산업다각화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석유화학 부문을 비롯한 중화학분야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지역의 높은 인구증가율도 플랜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연평균 3%가 넘는 높은 수준의 인구증가 혹은 인구유입으로 전력, 교통, 담수 등에 대한 인프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확대되는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수주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플랜트 분야 경쟁력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는 담수를 비롯한 극히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초공정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이 없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 크게 뒤처져 있는 상태이다. 설치나 시공분야에서는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제철이나 시멘트와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플랜트분야에서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얼마나 기술경쟁력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조달(financing)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 플랜트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공정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의 개발과 금융조달 능력의 향상이 뒷받침될 때에만 플랜트시장으로서 중동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오일머니 유치 지역

국제유가의 상승과 더불어 막대한 오일머니가 중동 산유국으로 유입되면서 중동은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중동 산유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의 규모는 최소한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석유안정기금(oil stabilization fund)' 등의 형태로 축적하여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모두 국가 소유이고 투자청이나 중앙은행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흔히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라고 불린다. IMF는 2007년 현재 전세계 국부펀드의 규모가 3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을 중동의 산유국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SAMA), UAE의 아부다비 투자청, 카타르 투자청 등이 보유하고 이러한 펀드의 규모는 약 1조 47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6-1. 국부펀드의 지역별 규모 ▌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중동	아시아	유럽	기타
규모	1,475	835.6	460.0	121.8
비중	51.0	28.9	15.9	4.2

주: IMF 추정치(최대치) 기준.
자료: IMF.

이러한 국부펀드의 투자규모는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M&A나 헤지펀드 투자와 같이 위험도는 비교적 높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펀드들이 자국의 산업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에 인색하다는 내부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술과 경영능력을 흡수하고 자국의 산업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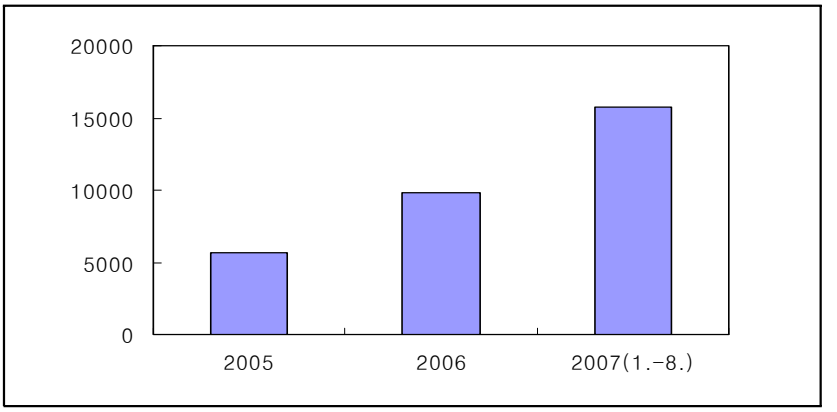
는 해외기업의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비중도 계속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동성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가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동이 직접투자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일부 정유회사에 투자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형태의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행태는 중동 산유국의 일반적인 투자행태와 일치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중동 국가의 우리나라 유가증권 순매수 규모는 2005년 5,643억 원에서 2006년에는 9,813억 원으로 증가하고 2007년에는 8월 말에는 이미 1조 5,75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년 사이에 거의 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동의 오일머니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동의 국부펀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거의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중동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그림 6-3. 중동의 우리나라 유가증권 순매수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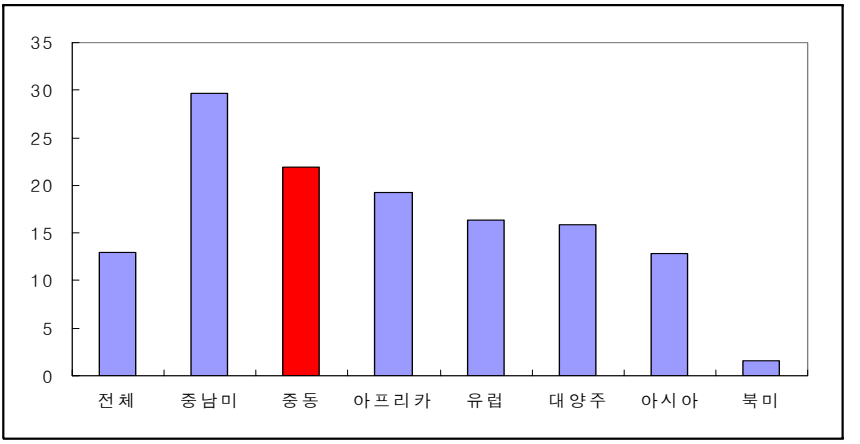
생소하다는 점에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3]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보다도 더욱 바람직한 것은 직접투자인데 특히 중동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인 석유화학, 정유, 화학, 제철, 건설자재, 기타 에너지 분야 등이 유망한 투자유치 대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동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대중동 통상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역동적 신흥시장

중동은 우리에게 유망한 신흥시장 중 하나이다.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원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경제규모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4. 최근 3년간(2005~2007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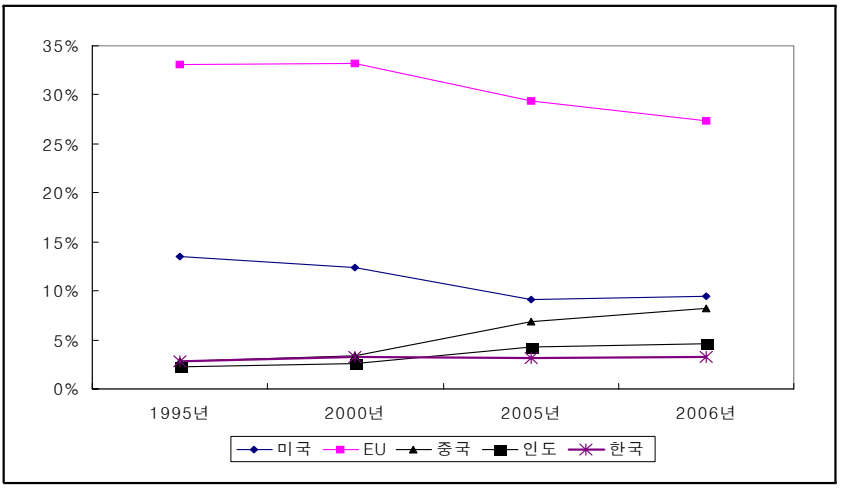
주: 1) 연평균 증가율의 단순평균임.
2) 2007년은 9월까지의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23) 2007년 10월 대신증권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비중을 고려하여 중동 오일머니의 유치 가능규모를 최대 11조원(126억 달러)으로 추정한 바 있다.

물론 중동지역이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어서 전쟁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제가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GCC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휘말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GCC의 주변국가라고 할 수 있다. GCC 국가들이 이 나라들의 분쟁에 연루되어 지정학적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CC지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편 이란과 이라크는 현재 매우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사실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이다. 전통적인 석유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3위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1979년 이후 약 30년간 전쟁과 정치적 격변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정학적 문제만 해결되면 한 세대 정도 억눌렸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나라는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1억 명에

▌그림 6-5. 중동의 총수입 중 각국 점유율 추이▐



주: EU는 중동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7개국의 합.
자료: IMF(2007).

이르는 막대한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GCC를 훨씬 능가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중동국가가 현재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의 수출증가율과 앞으로의 이 지역의 성장전망에 비추어 볼 때 이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수출의 경우 이 지역은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가시장에서는 미국과 EU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 저가시장에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미국과 EU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의 공격적 수출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24] 우리의 수출품 구조를 고려할 때 중국과 경쟁하기보다는 미국과 EU가 장악한 고가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잠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중동 산유국들은 산업다각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산업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상품이나 플랜트 수출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등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통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 GCC 국가들은 서비스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우리 기업들도 금융, 의료, 관광, 부동산개발, IT 및 통신서비스 부문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분야에서의 외국인자본 유치를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신흥시장으로서 수익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기업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욱 상세히 다룰 것이다.

24) 우리나라의 중동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995년 2.8%에서 2000년과 2006년에는 각각 3.3%로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EU, 미국, 일본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결과이다.

2. 중장기 통상전략

가. 통상정책의 목표

1) 에너지 안보를 위한 관계 강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대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란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요인에 의해 에너지의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때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석유의 경우 최근에 공급능력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물량부족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산유국과의 관계 강화가 절실하다. 현재까지는 제도적 틀을 통해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명시적 협약 외에 상시적 협력을 통한 신뢰 및 우호관계 구축이나 경제적 연계관계 형성도 비상시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경제관계의 다변화와 심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동 통상관계는 주로 상품수출과 에너지 수입, 그리고 플랜트 수출에 국한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동 투자나 중동의 대한투자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제관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동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처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상황과 정책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이나 플랜트의 수출입을 넘어서 양 지역간 경제관계를 다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관계를 통한 양 지역간 경제통합의 심화는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동은 성장이나 투자면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신흥시장 중 하나이므로 기존 경제관계

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3) 오일머니의 투자유치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중동은 세계 유동성의 저수지가 되고 있고, 이를 외국으로 유출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오일머니의 투자유치를 중요한 통상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기금으로 운용되는 중동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다른 외국 자금과는 달리 안정적 장기투자의 성격이 강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관련 분야, 석유화학, 제철, 건설자재, 금융이나 도시개발 등 서비스 분야, 민간자본 참여형 인프라 사업 등이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4) 플랜트 수출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의 수주율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통상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주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나 엔지니어링 분야와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진출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랜트 수주에서 파이낸싱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우리 금융기관의 파이낸싱 능력을 제고하여 중동에서의 금융산업 진출과 플랜트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나. 종합적 통상전략

1) 대중동 통상외교의 위상 제고

우리 정부의 중동에 대한 관심은 세계 에너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은 1970년대와 같이 지정학적 불안이나 자원민족주의에서 비롯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수급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화석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있는 한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절대적인 공급지역이며 앞으로도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정책이나 통상정책에 있어 중동지역의 위상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높아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 공급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격만 증가할 경우는 에너지 안보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 자체에 차질이 발생하면 에너지 안보는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동 외교의 위상을 증대하는 것은 우선 전체 외교역량 중 중동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산과 인력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외교통상부가 걸프지역과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산유국과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제 에너지시장 체제하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구체적 제도를 갖추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양자간의 다양한 정치외교적 신뢰관계와 경제적 통합 증진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존재(presence)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학문 등 각 방면에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의 빈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7년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은 28년 만에 있은 정상의 중동 방문이었다. 이것은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중동방문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중동과의 포괄적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포괄적 접근의 중요성

대중동 통상정책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포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란 통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에 문제가 되는 다른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 외교, 사회 등 다른 영역의 문제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중동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상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즉 왕정체제인 걸프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집중화되어 있고,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제도적으로도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왕정의 경우 왕족이 경제나 정치 모든 분야에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 접근이 효과를 발휘할 여지가 크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에너지 안보를 대가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하지만, 에너지 영역에 국한해서 보면 우리가 그 대가로 중동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상품이나 플랜트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상품이나 플랜트를 중동에 일방적으로 수출하지만 에너지를 제외하면 우리가 중동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에너지 수입선

▌표 6-2. 한 · 중동의 상호보완적 관계 ▌

	자산요소	필요요소
한국	우수한 노동력 발전된 기술(IT, 플랜트) 축적된 발전경험 동북아경제의 허브 포용적 유교문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해외시장(상품, 플랜트) 외국인 투자
중동	풍부한 에너지 자원 풍부한 자본 시장잠재력 이슬람의 고유문화	인적자본 축적 경제발전전략 안정적 에너지 시장 동아시아와의 협력 해외투자 대상

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동과 관련된 모든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각 부처에 산재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나 외교통상부가 간사 부처가 되어 정기적으로 현안을 검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중동에 제시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넓다. [표 6-2]는 우리나라와 중동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산요소와, 또 양국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각국의 자산요소를 상대방의 필요요소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면 양 지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중동이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우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통상분야의 다른 이익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25)]

3) 경제통합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전략

중동의 산유국들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제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위기시에 우리가 석유나 천연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기란 현재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지역의 유전은 대부분 국영석유회사에 의해 소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개발 참여와

25) 최근 우리나라는 고등훈련기를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거래를 UAE와 협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UAE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프로그램을 준비한 바 있는데, 이것이 패키지 협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력, 철도, 핵발전, 자원개발 등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이란은 외국인 자본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유망한 지역은 역시 이라크이지만 이라크 역시 석유개발을 둘러싼 종파간 대립 때문에 아직 외국자본의 본격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와 중동간의 경제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이다. 공고한 경제적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동 산유국의 이해관계와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중단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의 석유분야 상류부문(upstream)과 우리의 하류부문(downstream)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중동 석유회사들이 우리의 정유나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하여 지분을 갖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기지로서 우리나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동기업이 참여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물류기지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석유공동비축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기업들이 중동에 투자하는 것도 간접적이지만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유나 석유화학 분야는 물론이고 고용창출 능력이 있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바람직하다.[26] 만약 에너지 위기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 혹은 기업이 충격을 받고 그 결과 자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이 곤란에 빠지면 자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산유국의 노력이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6) 2007년 초 LG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전제품 조립공장을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고용창출형 투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강력히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확대는 양국간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GCC와의 FTA도 결국 이런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GCC와의 FTA에서는 상품관세의 인하로 우리의 수출을 촉진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GCC와의 경제적 연계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4) 통상관계의 다변화 지원

중동의 통상정책에 있어 과거의 주요 통상관계, 즉 에너지수입, 상품 및 플랜트 수출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통상 분야의 발굴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동은 산업구조의 전반적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대중동 통상정책에 있어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투자확대, 중동 오일머니의 국내 유치, 중동 서비스시장 진출의 세 가지이다.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중동 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 이러한 투자의 부진은 한국에 대해 중동 산유국들이 가장 서운해 하는 부분이다. 물론 중동은 걸프지역만 보면 약 5,000만 명의 크지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제조업 투자를 하기에는 인프라, 제도적 환경, 인력, 연관산업의 발전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에너지, 석유화학, 건설, 부동산개발, 유통 등은 투자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유럽의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중동을 투자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기업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스미토모는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업들이 중동을 투자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기업들도 이제는 원료공급이나 시장으로서의 이점을 가진 앞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투자관계의 발전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일머니의 투자유치도 대중동 통상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

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며 유망한 분야는 석유화학, 정유, 신재생에너지, 소재 및 건설자재 분야 등으로 판단된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중동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중동투자전용구역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나 M&A 형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국부펀드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국부펀드들의 동북아 지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펼칠 필요가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앞으로 중동 국부펀드의 중요한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은 서비스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이 산업다각화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분야인데 두바이를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경제특구들을 조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들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정부도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출이 유망한 서비스 분야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등 IT 관련 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 및 문화 서비스, 인력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 분야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정보제공이나 시장조사단 파견 등 정부의 진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동 지역은 현지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데 비해 소득수준 및 서비스 수요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시험 무대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의 축적

기업들의 중동 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의 장기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의 정보나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다. 그리고 중동경제의 특성상 왕족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동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축적, 그리고 중동지역 인사와 국내 기업계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에게 이 분야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동 국가의 정계 혹은 재계의 인사들과 우리 기업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포럼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설명회나 시장개척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동 포럼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 형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외교부가 구상 중인 중동소사이어티(Middle East Society)를 조기에 구성하여, 중동과의 다양한 교류를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국가 브랜드의 관리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가 중동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인은 근면한 국민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중동 정부들은 우리나라를 단기간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여 그 경험을 공유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우리 상품이 호평을 받으면서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 모두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양호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국가 이미지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상품수출국으로서가 아니라 투자대상국으로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투자설명회나 광고, 다양한 컨벤션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시현(presence)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문화의 홍보, 한국학 활성화, 방송콘텐츠의 확산,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한국발전경험에 대한 관심 유도 등을 목표로 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동 지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유국들은 모두 고소득국가이기 때문에 원조가 무의미하지만,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고 바람직한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모든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는 우리가 아랍 국가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동지역은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문제, 시리아와 레바논 관계, 이라크의 재건 문제,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금은 아랍 국가들과 미국이나 EU 등 서방세계가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서방과 아랍 양 지역으로부터 호감을 갖고 있고,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라는 점 등을 이용하여 양측을 중재하는 국제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7) 잠재 국가의 관리

중동 국가 중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과 이라크이다. 이란은 인구대국이며 자원부국이지만 핵개발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대립으로 우리와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제약이 따르는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란은 수출시장, 에너지교역, 플랜트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양국간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짙은 정치세력이 집권하고 있지만 장

기적으로 보면 개혁세력에 의한 집권가능성도 높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크다. 이때는 양국간 경제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우리의 대미관계나 전체적인 외교통상관계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역시 현재는 국내의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치안 불안 때문에 통상 측면에서 우리의 진출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라크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임은 틀림없다. 이라크의 치안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세 변화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단계별 통상정책이나 진출 전략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부문별 통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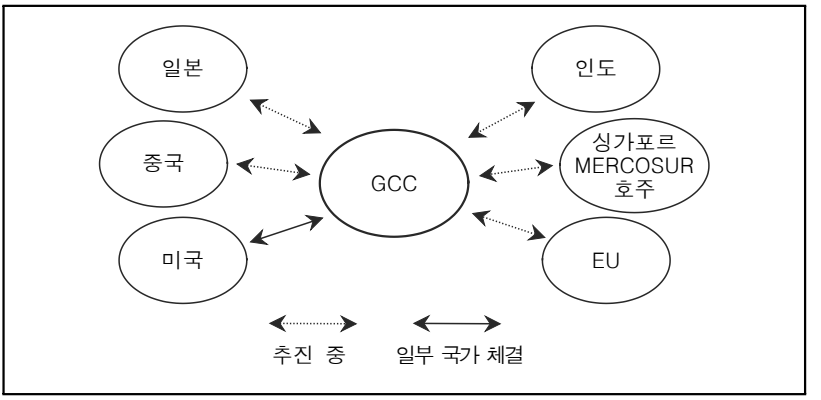
1) 교역부문

가) GCC와의 FTA 체결

양자간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GCC와의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GCC와의 FTA를 통해 상품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 촉진과 정부조달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플랜트 수출 확대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같은 전략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등 세계 주요국들은 GCC와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이들 국가들이 GCC와의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 이슬람지역과의 관계개선,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의 전략적 목적도 함께 자리잡고 있다. 비록 FTA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이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간 정치・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고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원유수입의 약

70%를 GCC 지역이 차지할 만큼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GCC의 전략적 중요성은 크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이 GCC와의 FTA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GCC와의 FTA 체결에서 배제될 경우 경쟁국들에게 경제협력 및 에너지 협력상의 우위를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 GCC와의 FTA 체결을 통해 양자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GCC와의 정치·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6-6. GCC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FTA 체결로 양자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GCC 수출은 약 2.6억 달러(4.9%)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약 7억 달러(2.4%) 증가하여 무역수지적자 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비록 양자간 전체 무역수지는 약 4.5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만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타 산업에서는 2.2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28] 즉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석유수입은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28) 보고서의 결과는 원유에 대한 우리의 기본관세율 5%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인데, 현제 실제로는 원유수입에 대해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FTA 체결로 인한 원유수입 증가

증가하는 대신 제조업종 품목의 수출은 확대되는 것이다. GCC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일부 석유화학제품과 알루미늄제품이 주요 민감교역품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GCC 국가들은 풍부한 석유・천연가스 에너지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에너지기반 제조업에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민감교역품목의 수입 규모는 약 6억 달러로 대GCC 전체 수입액의 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GCC 국가들은 석유・가스를 비롯한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하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FTA 체결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방문시 추진이 합의된 우리나라와 GCC 간의 FTA는 2007년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GCC FTA 사전협의(preliminary talks)를 통해 2008년 4～5월경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한 상태이다. 한・GCC FTA는 상품・서비스 분야 외에도 투자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제협력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FTA로 할 것과 양측간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고 민감한 분야가 없는 만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수출확대

오일머니 유입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동의 수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현지시장 특성에 맞춘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기계장치, 통신기기, 사무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우리제품의 보다 활발한 진출이 기대된다. 최근 중동 수입시장의 주요 특징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지시장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해 중국제품에 대응하고 현지 시장점유율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GCC 시장의 경우 구매층이 고소득 현지인과 저소득 외국인노동자로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

는 분석결과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 이러한 특성을 파악한 시장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문화와 관습을 반영한 현지맞춤형 제품개발과 함께 높은 인구증가율로 새로운 구매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활동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진출유망 제품을 보유하고도 현지 시장정보와 판매망 부재로 중동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형 IT 제품, 중소형 기계류, 자동차 부품, 건축건설기자재, 의료기기 등은 대중동 진출유망 제품으로 평가되므로 현지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나 상설매장 개설 등을 통한 수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걸프지역은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인맥이 중시되며 무역 관련법규 또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시장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 유력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한 시장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제품(Made in Korea)에 대한 인지도 및 브랜드 제고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IT 제품 및 자동차 등의 진출확대로 인해 현지 시장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제품은 유럽과 일본제품에 비해 인지도나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다. 중국 등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현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를 통해 우리제품의 브랜드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각종 컨벤션과 투자설명회, 매체광고와 문화・방송콘텐츠 확산 등을 통해 IT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문화를 홍보해 국가이미지 및 기업이미지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에너지 부문

에너지 협력은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 경제교류의 비중이 가장 크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분야이다. 중동으로부터의 석유・가스 수입이라는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의 에너지 협력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협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하에서 제시되는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들은 철저한 시장논리와 경제성 확보의 원칙하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동 산유국과의 석유공동비축 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생산 전망을 상회하는 석유수요 증가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위기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세계 각국이 치열한 에너지 확보전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중동 산유국과의 원유비축 협력은 우리 정부의 주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석유공동비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비상시 공급원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중동 산유국은 동아시아 석유시장에 대한 판매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판매시장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한적이지만 에너지 개발 분야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동 걸프지역의 경우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기업의 상류부문 진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쿠웨이트는 앞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와 UAE는 법적으로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미 석유메이저들의 진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가 가장 유망한 국가는 결국 이란과 이라크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최근 중국과 인도가 LNG 장기도입계약의 대가로 유전개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으로 신중한 검토와 투자평가가 요구된다.

셋째, 해외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자국의 석유생산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외국의 석유자원 개발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은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플랜트수출, 에너지인프라 건설 진출 등의 연관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3년 이후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전개

하여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에서 활발한 탐사 및 생산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는 해외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선 변화 및 비축 효과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를, 중동 산유국은 투자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이다. 중동 산유국이 해외자원개발 파트너로서 서방 메이저기업을 선택할 경우 높은 수익을 분배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한국기업과 협력할 경우 서방 메이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 수익을 확보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높고 막대한 초기자본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자본조달 부담을 줄이고 산유국의 석유개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다각화와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제고 기술, 온실가스저감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와 절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특구지정, 부지제공, 펀드조성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비교적 적고 향후 시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3대 분야를 신재생에너지 집중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동 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우리기업의 기술과 인력, 중동 산유국의 자본을 결합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할 수 있다. 중동 산유국은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우리기업은 기초기술 및 전문인력을 제공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원자력 발전 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GCC 지역은 최근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규모 발전설비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낮아 새로운 형태의 전력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GCC 국가들의 경우 이란의 핵개발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서방의 동의 내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환경도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원전사업 후발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해외원전사업을 진행 중으로 해외원전 수출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건설에 필요한 고유기술과 전문인력을 제공하고 GCC 국가는 원전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제공하는 보완적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투자 부문

양자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을 중점 육성 중인 GCC 산유국과 동 분야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기업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은 양자간 비교우위와 보완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유망 협력분야로, 특히 석유화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영역에 진출한 우리의 대기업과 GCC 국영기업 간의 패키지형(에너지-제조업 연계) 협력을 통해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 외에도 양호한 인프라 수준과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한 GCC 산유국들은 포스트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다각화 추진분야 가운데 석유화학 분야는 산유국들이 풍부한 석유・천연가스를 활용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풍부한 석유・가스계 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저렴한 원료 조달로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통해 얻어지는 기초화학 제품이 각종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므

로 산업다각화 측면에서 산업별 전방연쇄 효과가 크다는 점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매력이다.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투자 여력이 충분한 각국 정부는 이미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석유화학산업 발전 수준은 잠재력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해결과제 또한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도 생산제품을 해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확보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석유화학분야 기술력 제고와 숙련노동자 육성,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GCC 산유국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협력파트너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세계수준의 생산기술 및 R&D 역량은 물론 중국시장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주도하에 약 30년 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에틸렌 기준 세계 5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공정합리화, 제품개발, 원가 절감 등 생산 및 공정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연관산업 기술인 설비・장비 제조 및 설계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등의 역량 또한 높아 연관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 혁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풍부한 마케팅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 또한 GCC 산유국들이 갖추지 못한 경쟁력이다. 우리나라는 합성수지 분야에서 중국의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이며, 우리기업들은 중국 개방 초기부터 적극적인 현지 진출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준 높은 마케팅 역량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GCC 산유국의 풍부한 자원 및 자금력과 우리의 기술력 및 중국시장 마케팅력을 접목시킴으로써 양자간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GCC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산업 협력을 토대로 전략적 투자협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 GCC 산유국들은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산업 외에도 여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이 절실하지만 기술력과 전문인력, 사업경험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화학뿐

만 아니라 가전, IT,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 진출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GCC는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제조업 또는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GCC 국가의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제조업 육성을 위한 투자협력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는 GCC 에너지산업 진출기회 확대 및 오일머니 유치 등과 함께 중동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일머니 유치 측면에서 중동산유국의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중동정부의 관심이 높은 석유화학, 정유, 신재생에너지, 소재 및 건설자재 분야 등을 투자유치 유망분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중동의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 투자나 M&A 형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와 함께 중국시장을 겨냥한 중동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중동투자전용구역 조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4) 건설 · 플랜트 부문

중동은 우리의 최대 건설・플랜트 수주대상지역으로, 대중동 건설・플랜트 수출은 오일머니 환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하고 진출기업의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업체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플랜트 업체 간 공동 수주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대중동 플랜트 수주과정에서 국내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진출분야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 업체간 협력을 통해 업체별 전문분야를 나누어 공동으로 수주에 참여할 경우 제3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제조기업, 건설, 상사 등의 업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주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입찰 성공시 동반참여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경쟁력 확보 및 파이낸싱 조달능력

확대 또한 협력체계 구축의 장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주가 특정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업체간 협업체제 구축 및 공동 수주협력 등은 기업들의 이권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므로 업체들만의 노력으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한 정부의 협의체 구성 및 시스템구축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능력과 자재 조달능력의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설계・시공일괄방식(EPC)의 발주형태가 증가하고 사업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중동을 비롯한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부문의 연계가 강화되고 사업범위가 대형화・전문화됨에 따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파이낸싱 능력, 글로벌 네트워킹과 같은 요소들이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프로젝트 기획과 관리 측면에서 해외 선진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관리자의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설계・시공・관리 분야에 대한 업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중동 플랜트시장 과열로 인해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하고 시행업체들은 자재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자재 조달 측면에도 선진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현지 조달시장 정보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신규 공급자 발굴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부가가치 공정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한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시장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부가가치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우리기업은 고부가가치 공정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국내 중소 엔지니어링 및 플랜트 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끝으로, 자원개발과 연계한 플랜트 수주전략 구사를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은 상류부문과 중・하류부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플랜트 수주활동에 있어서도 기술력과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프로젝트 수주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 탐사・발굴과 같은 상류부문에 투자한 기업들이 중・하류 부문 플랜트 수주활동시 선점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현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기업은 유전개발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력과 자금력도 열세에 있기 때문에 탐사사업 같은 리스크가 큰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생산광구 지분 확보나 유망광구 출자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분야의 정보 및 경험을 쌓고 현지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부간 관계와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필수적이다.

5) 서비스 부문

양자간 서비스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유망분야로 정보통신과 금융업을 꼽을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다각화의 핵심산업 중 하나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기반이 약한 걸프지역에서 우리기업과의 협력여지가 큰 분야이기도 하다. UAE는 걸프지역에서 정보통신 발전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인근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UAE 정부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IT 기술인 Wibro와 DMB에 관심을 표명해 왔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UAE 방문시 양국간 IT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UAE는 우리 정보통신 기업들의 걸프지역 진출 거점으로서 적지라 할 수 있다. 또한 UAE 정부는 중동의 정보통신산업 허브를 목표로 두바이의 인터넷시티를 중심으로 IT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UAE 국영통신기업 Etisalat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Wibro・DMB・WCDMA 등 최신 통신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우리 업체와 Etisalat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프리카나 주변 아랍지역의 통신서비스시장에 공동진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아직 정보통신인

프라 수준이 낮은 편지만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큰 잠재성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는 2,400만 명으로 GCC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한다. IT수준 역시 기초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정도로 낮다. 이란의 경우 외국인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낮은 정보통신 발전수준과 7,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로 인해 장기적으로 진출을 추진해야 될 중동의 거대 시장이다.

한편 금융업은 우리기업의 진출이 시급한 분야 중 하나로 특히 이슬람 금융 시장에 대한 진출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에 의거해 개발・판매되는 금융을 의미하는데, 중동 산유국이 보유한 오일머니 투자유치와 우리기업의 중동 현지 플랜트 수주기반 강화를 위해 우리 금융업계의 진출이 시급한 분야이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막대한 오일머니를 보유한 중동 산유국들의 투자 창구로 이슬람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구미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에 진출하였으며, 최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도 이슬람 금융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동 석유수출국들의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규모가 급증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금융서비스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현재 GCC 내에서만 1조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이 규모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수백억 달러 이상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9]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걸프지역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주된 자금 동원 수단으로 중동 특유의 금융시스템인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기 위해 동 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 기업의 對중동 진출을 지원하고 오일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상품인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추진 중이다. 오일머니로 중동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주식공모(IPO) 및 M&A도 활발해져 중동이 세계 금융기관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이 긴요한 상황이

29) MEED(2006), *PROJECT FINANCE: Filling the funding gap* 참고.

다. 우리 금융기관 역시 중동진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참여와 이슬람 금융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현지에서 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시장을 발굴하고, 플랜트 기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을 높이는 상호협력모델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바레인이 걸프지역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두바이가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이 두 나라가 걸프지역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과 정보통신 분야 외에도 의료서비스, 관광 및 문화서비스, 인력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등도 진출유망 분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여지가 큰 분야이므로 정보제공이나 시장조사단 파견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과학기술 부문

한・중동 경제관계를 상품 및 플랜트 수출을 통한 오일머니 환류에 초점을 둔 단선적 경제협력 구도에서 탈피하고, 상호 발전적 동반성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동 산유국의 최대 경제현안은 산업다각화를 통한 비에너지산업의 발전이지만 저조한 과학기술 수준과 전문인력 부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자본・기술집약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한 발전경험과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중동 산유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지식기반사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로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산업 및 경제발전에 있어 국책연구소가 기술개발 및 확산에 주도적 기능을 담당한 바 있다. 이에 중동 산유국들이 정부출연(government-funded)연구기관을 성공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유국의 국가주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과학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산업연

수, 기술자문,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등의 상호협력 프로그램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7) ODA 부문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지원은 대중동 외교 및 경제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 내 팔레스타인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과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4차례에 걸친 대부분의 중동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권 간의 대립이었을 만큼 이스라엘은 중동 아랍인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이 처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상당한 동정과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중동 아랍권 내에서 국가이미지와 외교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중동국가와의 외교・경제적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여 년간 연수생 훈련, 물자공여, 긴급원조 및 프로젝트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약 1,000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ODA를 확대하여 팔레스타인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독립은 중동 평화에 있어 획기적인 사례이므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폭주할 수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독립과 국가 정상화에 대비하여 사회기간시설 구축 및 도시현대화 프로젝트 등을 미리 장기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독립국가 수립시 발주될 대형 국책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건설 및 경제운용에 대한 발전경험 전수를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이후 경제운용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금

전적 지원 못지않게 팔레스타인에게 절실한 것은 국가경제 운용 관련지식과 경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전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팔레스타인에게 매우 유용한 적용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 각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한-GCC FTA 타당성 분석 및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_____. 2006. 『중동 진출확대를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연구용역보고서.

_____. 2007. 『한-UAE 경제협력 비전』. 연구용역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06. 『중동지역 진출 종합대책(안)』.

무역연구소. 2005. 『한-GCC FTA 타당성 검토』.

박복영 · 김흥종. 2003. 『미국의 대 중동 FTA 수립 제안의 배경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2004a.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4b. 「중국, 석유확보 위해 중동 진출 본격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5a. 「중동 오일달러 규모와 그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5b. 「석유를 매개로 한 아시아와 중동간의 관계강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 박철형. 2006. 「우리나라, 중동 플랜트시장 점유율 1위」.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1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 황주성 · 박철형. 2006.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희연. 2002.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5.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승구 외. 2006. 『중동오일머니 활용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 2005. 『중동 진출가이드』.

주동주. 2006. 『고유가시대 일본의 대중동 경제협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주동주 · 김학기 · 이진면. 2006. 『고유가시대의 대중동 산업협력전략: FTA와 플랜트 수출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차홍선. 2005. 「중국과 중동 석유화학 투자 환경 점검」. 『LG 주간경제』.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www.kita.net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www.petronet.co.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데이터베이스. www.koexim.co.kr
해외건설업협회. 해외건설수주 데이터베이스. www.icak.or.kr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산업정보. www.plantkorea.com
한국IDC. 2005.「세계 IT 진출 산업별 분석 및 전망보고서 2004~2008」.
KOTRA. 2005.「중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강화 동향과 우리에 미치는 영향」. 현안리포트 05-006.
LG경제연구원. 2005.「세계 석유화학산업 환경변화와 국내기업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서울. (6월 29일)

• 외국문 자료

日本 經濟産業省. 2006a.『日本の世界經濟戰略』.
_____. 2006b.『日本の原油輸入と對中東貿易』.
日本 外務省. 2006.『外交青書』.
日本 通産産業省. 2006.『通商白書』.
Al-Atrash, H. and T. Yousef. 1999. "Intra-Arab trade: Is it too little?" IMF Working Paper.
Arab Monetary Fund. 2003. *Unified Arab Economic Report*. (in Arabic)
Archick, K. 2005. "European Views and Policies Toward the Middle East." CRS report for Congress.
Baier, S. L. and J. H. Bergstrand. 2004. "Trade Agreements and Trade Flows: Estimating the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Trade Flows with an Application to the European Union-Gulf Cooperation Council Free Trade Agreement." *European Economy*. EU Commission. (September)
H. Beblawi and G. Luciani, eds. 1987. *The Rentier State*. London: Croom Helm.
Belanger, H. and P. Guay. 2005. "Urban Industrial Free Zone: Territorial Reorganization in a Global Economy." Paper presented at a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ntegrating Urban Knowledge & Practice. (May 29-June 3)
Bilaterals.org. www.bilaterals.org
BP. 200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Capital Intelligence Group. 2005. "Country Banking Report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6. *Middle East Program China-Middle East Project.*

Dar, H. A. and J. R. Presley. 2001.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A Slow Path to Integration?" *The World Economy*, vol. 24, no. 9, pp. 1161-1178 (18).

DeRosa, D. A. and D. Kernohan. 2005.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an EU-GCC FTA." *Journal of Economic Cooperation*, vol. 26, no. 1.

Duba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acroeconomic Statistics DB." www.dcci.ae

EIA. Country Analysis Brief. various issues.

_____. 2006.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6.*

EIU. Country Report. Various issues.

Escribano-Frances, G. 2005. "A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view of EU-GCC Partnership."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KISR).

ESCWA. 2001. *Economic Diversification in the Oil-producing countries: The Case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Economies. UN.*

European Commission. 2004. "EU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Mediterranean and the Middle East."

_____. 2005. "15th GCC-EU Joint Council and Ministerial Meeting (Final agreed version)."

_____. 2006a. *Annual Report 2006 on the European Community's Development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of External Assistance in 2005.*

_____. 2006b. *EU Bilateral trade and trade with GCC.* DG Trade.

Galal, A. and B. Hoekman. 2003. *Arab Economic Integration*. Egyptian Center for Economic Studies.

Global Investment House. 2005. "GCC Banking Sector."

_____. 2006. "Saudi Arabia Economic & Strategic Outlook."(April)

Gordon, P. H. 2003. "Bush's Middle East Vision." *Survival*, vol. 45, no. 1 (Spring).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Gulfnews. www.gulfnew.com

Gulf Organization for Industrial Consulting. 2005. "Petrochemicals Industry in GCC

Member States." *Gulf Industrial Bulletins*, vol. 6, issue 60.

_____. 2006a. "Gluf Investment and IT's Trends." *Gulf Industrial Bulletins*, vol. 7. issue 66.

_____. 2006b. "Development of Aluminium Industry in the GCC States." *Gulf Industrial Bulletins,* vol 7, issue 69.

_____. 2006c. "Chemical Fertilizers in GCC: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 *Gulf Industrial Bulletins*, vol. 7, issue 70.

Gulf Research Center. 2005. *Gulf Yearbook 2004.*

_____. 2007. *Gulf Yearbook 2006-2007.*

IEA. *Monthly Oil Report.* Various issues.

_____. 2002. *World Energy Outlook 2002.*

_____. 2003. *World Energy Investment Outlook 2003.*

_____. 2005. *World Energy Outlook 2005: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sights.*

ILO. 2003. "ILO Database on Export Processing Zones."

IMF. 2005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_____. 2005b.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_____. 2005c.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September 2005.*

_____. 2005d. *World Economic Outlook 2005.*

_____. 2006a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6.*

_____. 2006b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May 2006.*

_____. 2006c.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_____. 2006d. "World Economic Outlook 2006 database."

_____. 2007.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ITU. 2002. "Arab States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1992-2001."

_____. 2004. *World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_____. 2005. *The Internet of Things.*

Jaffe, A. M. 2005. "Energy security: implication for U.S.-China-Middle East relations." The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f Rice University.

Leverett, Flynt and J. Bader. 2005. "Managing China-US Energy Competition in the Middle East." *Washington Quarterly*.

MEES. Various issues.

MEED. Various issues.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of Saudi Arabia. 2005. *The Eighth Development Plan.*

Murinde, V. and C. Ryan. 2003. *Gulf Banking and the WTO'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National Bank of Dubai. 2005. *Economic Report.*

Noland, M. and H. Pack. 2004. "Islam, Global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s. IIE.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Various issues.

_____. 2005. *Annual Statistical Bulletin.*

_____. www.opec.org

Oxford Analytica. Various issues.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2005. *Telecoms, mobile and broadband in the Middle east.*

Price Waterhouse Coopers. 2004.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SIA) of the Negotiations of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ountries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GCC).*

Rubin, B. 1999. "China's Middle East Strategy." *MERIA*, vol 3, no. 1.

Rutledge, E and N. Janardhan. 2004. *Bahrain-US FTA Exposes GCC Chinks*. Gulf Research Center.

Saudi Arabia Government. 2006. *The Eighth Development Plan*. webserver.planning.gov.sa

Sharp, J. M. 2005. "The Middle East partnership initiative; An overview." CRS report for Congress.

_____. 2006. "US Democracy promotion Policy in the Middle East: The Islamist Dilemma." CRS report for Congress.

Shams, Rasul. 2004. "A Critical Assessment of Islamic Economics." HWWA Discussion Paper.

Shin, J. H. and John J. Tkacik, Jr. 2006. "China and the Middle East: A New Patron of Regional Instability." *Backgrounder*, no. 1974. The Heritage Foundation.

Simmons, M. R. 2005. *Twilight in the Desert: The Coming Saudi Oil Shock and the World Economy.* Wiley.

Sturm, M. and N. Siegfried. 2005. "Regional Monetary Integra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Occasional Paper Series, no. 31.

The Jamestown Foundation. 2005. *China brief*, vol 5, issue 12.

UAE Government. 2007. *Federal Government Strategy.*

UAE Minister of Presidential Affairs and National Media Council. 2007. *UAE Yearbook 2007.*

UN. 2005.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5.*

_____.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http://unstats.un.org/unsd/comtrade

UNCTAD. 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_____. 2005. *Handbook of Statistics 2004.*

_____. 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_____. 2007. PC-TAS DB.

UNSTATS. 2006. *Millennium Development Indicators.*

USTR. 2005. "Each FTA's Unique Benefits, Innovations, And Specific Negotiating Objectives."

_____. 2005. "Trade Facts."(September)

Wittes, T. C. and S. E. Yerkes. "What Price Freedom?: Assessing the Bush Administration's Freedom Agenda." The Saban Center for Middle East Policy at the Brookings Institute.

World Bank. 2003a. *Better governance for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Enhancing Inclusiveness and Accountability*. New York.

_____. 2003b. *Jobs, Growth, and Governance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_____. 2004a. *Global Monitoring Report.*

_____. 2004b. *Unlocking the Employment Potential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_____. 2005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2005: Oil Booms and Revenue Management.*

_____. 2005b. *Infrastructure and the World Bank: A Progress Report.*

_____. 2005c.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_____. 2006a. *Doing Business in 2006.*

_____. 2006b.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_____. 2006c.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2006: Financial Markets in a New age of Oil.*

_____.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www.worldbank.org

_____. "Privatization Database." www.worldbank.org

World Economic Forum. 2005. *The Arab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5.*

_____. 2007.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 and the World: Scenario to 2025.* (May)

Executive Summary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the Middle East

Bokyeong Park and Chulhyung Park

While the international price of oil has been continuously skyrocketing for several recent years, the all-time highs for oil prices will possibly continue in the middle and long terms. After the arrival of newly high oil prices, immense oil money has poured into the Middle East. With the revival of the Middle Eastern economy based on the oil money, this region has become a cynosure of global economies. This study begins wit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conomic trends in the Gulf region and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mid -and long- term trade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nd economic outlook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 the positions and policies of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of these countries; and the world's major economies' cooperative policies with the Gulf region. Finally, this report suggests mid - and long- term trade policy strategies for Korea toward the Gulf region.

The supreme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Gulf region are mainly the following: to secure stable income from energy exports such as oil and natural gas, to diversify the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alleviation of dependence on the energy industry, and to create more jobs for people of the Middle East. Securing incomes from energy is essential both for stable life of people of the Middle East and for the preparation of the investment resources necessary for diversification of the industry in the long run. Industrial diversification is meant to relieve the economic impact of a sudden decline in oil prices and to insure the future after the exhaustion of energy resources. Job creation is intended to prepare both for the increase of youth unemployment due to high population growth and for the socioeconomic problems incurred

from the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labor.

While considerably opening its import market, the GCC countries' market access to the service sector and foreign investment are restricted. Since the GCC reopened FTA negotiations with the EU, the GCC has been negotiating FTAs with China, Japan, India, and MERCOSUR at the same time. The reason that those countries are moving forward with FTAs is to expand the export market and to tighten the relationship in the energy sector. Korea is going to open FTA negotiation with the GCC in 2008.

The world's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S, the EU, China, and Japan are trying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Gulf region not only because energy security and market expansion have acquired greater importance due to high oil prices, but also due to Islamic issu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se economies' own inland security and social stability. The US set up the goal of regime change in the Middle East to create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The EU is pursuing an increase of influence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Gulf region. China is seeking to strengthen its energy security by utilizing the crack between the US and the Middle East. In addition, those four economies are actively using FTAs for cooperation with this region.

This study suggests four strategic goals of mid- and long-term trade policies to strengthe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oil-producing countries to secure its energy supply and to establish feelings of mutual trust and economic solidarity that will help energy security in an emergency. Second, Korea should diversify and deepen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Until now, trade relations have mainly relied on product exports, energy imports, and plant exports. Specifically, a deepening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economies through investment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nergy security. Third, attracting the investment of oil money should be the main goal of Korea's trade policy. Both portfolio investment and direct investment are important.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and the rate of awarding contracts in the plant industry of the Middle East,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expansion in this market.

KIEP 발간자료목록 | 2006~2007. 12

■ 연구보고서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종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흥종 · 신정완 · 이상호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종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오민아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태현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 · 한종만 · 성원용 · 이광우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 · 신현준 편저

■ 지역연구시리즈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 이 근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 · 김완중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 Anjan Roy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 · 허길행 · 유철 · 최미애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 · 김민수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07-1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 전개 / 이상현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07-16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07-06 **한·뉴질랜드 경협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Working Papers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 · 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종 · 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朴馥永)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U.C. Berkeley대학 경제학과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by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06)
"Natural resource,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6) 외

박철형(朴哲亨)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ch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공저, 2006) 외

연구자료 07-1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2007년 12월 25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발 행 처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129-8 94320 정가 7,000원
978-89-322-2064-2(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